

## <기간산업안정기금> 官 주도 40兆 기안기금 기업 운명에 '정치입김'

**스페셜 리포트**  
줄속 시행령에 운영과정 불투명  
'기금심의위' 대다수 장관 추천  
'좀비기업' 연명 특혜 논란도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리·운영	한국산업은행
운영 기간	기금 재원 조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재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지원 방식	대출, 보증, 출자 등
지원 결정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
심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관 추천인사 ..... 5명</li> <li>국회 추천인사 ..... 2명</li> <li>(민간 추천인사 없음)</li> </ul>

※출처: 금융위원회

총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정부 주도의 '대마불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의 논리에 역행하는 구조를 띠면서 객관적 기준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기안기금 운용이 좌지우지될 것인 지적이다. 특히 기금의 운용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장관 추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내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금융위원회장·산업은행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다 만들어지면 기금심의위를 바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회 위원 7명도 이달 내로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부문 추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지원 여부 결정보다는 기금의 관리감독 등 제한적인 업무를 맡게 됐다는 점 △운영방식과 기업 지원 여부 판단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 설부터 운용까지 허술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입김을 받는 인사들로 심의회를 운영하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도 로비가 들어가고 주관적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 어떤 기업을 살리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을 정부가 명확히 골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좀비기업과 한계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선지원해줄 경우 기업이 망하면 해당 기업에 들어간 돈은 세금으로 채우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기안기금의 허술한 운용 계획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령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방법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판단 기준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이게 바로 준비 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니경연 기자 contest@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임기 후반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12면

과감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희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거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제2안전망' 취업지원제 입법 촉구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할 것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지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딘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정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 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 커지는 'D의 공포'...근원물가 마이너스 전망

지난달 0.1%로 20년 만에 최저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이 늘어 수요 감소가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1999년 12월(0.1%) 이후 20여 년 만의 최저치다. 이 지수는 원유, 농산물처럼 공급측 요인에 의해 가격이 널뛰는 품목을 빼고 산출한 물가상승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

표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요 둔화에 고교 무상교육,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염병 여파에 수요가 줄어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원물가마저 하락하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며 "유가나 농산물 등 공급측 요인을 빼놓고 보더라도 수요 부진에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클럽감염 확산...유희시설 영업정지 확대

28일 만에 신규확진 30명 넘어  
등교연기 여부는 추이 보고 결정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인천시와 충남도도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8·9·14면

10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인천시와 충남도가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집합금지 명령 발

동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당국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날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유희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4명으로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6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클럽 방문자 명단 파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인접촉금지 등을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아나가는 게 실효성

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럽 방문자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도 최대한 보호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동선 공개 목적은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상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만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유예해 이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행정기관에 노출되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기간에는 검사나 치료 시 신고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한편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따른 등교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산 추이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바이오·후전자' 예상 적중... 이재용 '대형 M&A' 승부수

## '5대 신수종 10년' 성과·과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2010년 5월 10일 저녁. 이견희 삼성 전자 회장은 서울 한남동 승지원(영빈관)으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렀다. 이 회장이 경영 복귀를 선언한 지 50여 일 만에 그룹 사장단에 던진 첫 메시지는 신사업을 선점하라는 것이었다.

삼성엔 '5대 신수종' 사업으로 태양전자·자동차전자·LED(발광다이오드)·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을 선정했다. 동시에 2020년까지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태양전자·자동차전자·LED(발광다이오드)·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지 10년을 맞는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전자는 사업 선정 1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삼성의 새 성장 동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전자, LED, 의료기기는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들 5대 사업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 들어 더 동력을 얻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와 자동차전자다.

이 부회장은 5대 신수종 사업 발표 8년이 지난 2018년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가지 사업을 꼽았다. 2020년까지 4개 신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뉴(New) 삼성'은 이견희 회장이 발표한 5대 미래사업 가운데 태양광 대신 반도체를 앞세웠다. 동시에 자동차전자는 전장부품으로 확대했고, 바이오와 함께 신사업으로 재선정됐다. 제약 생산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삼성 5대 신수종사업 현황** ※ 이재용 부회장, 2018년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미래 먹거리로 재선정

**대규모 투자 R&D 지속**

**바이오제약**

- 삼성바이오로직스(의약품 생산), 10년 만에 지난해 최대 실적
-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제약 개발), 창사 8년 만에 흑자 달성

**자동차전자**

- 삼성SDI, 인력 총원 및 전기차 배터리 R&D·투자 지속
- 삼성SDI, 작년 창사 이래 첫 연매출 10조 원 달성

**축소 및 중단**

**의료기기**

- 2012년 메디슨 인수, 2016년까지 적자... 영상진단기기 사업 집중
-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업체 '레이'·인체용 체외진단기기업체 '넥서스' 매각

**LED**

- LED 해외조명 사업 철수... LED 부품 사업 집중
- LED 사업팀 인력 일부 DS 부문 메모리사업부로 전환 배치

**태양전자**

- 삼성SDI 태양전자 사업 철수
- 삼성정밀화학, 롯데에 매각

동시에 글로벌 최대 위탁생산(CMO) 기업 반열에 올랐다. 매출은 70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4.8%나 늘었다.

바이오복제약 개발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해 영업이익 122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바이오젠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지 8년 만에 첫 흑자 달성이다.

2017년에는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넘어 바이오신약 개발에도 나섰다. 자동차전자는 전기차 성장세에 힘입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자동차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수익성도 개선됐다. 삼성SDI는 코로나19 여파에도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로 2분기 자동차전자의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태양광전자, LED, 의료기기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은 소재부터 발전소까지 태양광 사업을 위한 수직 계열화 목표를 세웠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성SDI가

## 이견희, 신사업 선점전략 성공 태양광·LED·의료기기는 난항

### JY "과감한 혁신·기술투자할 것" 현금 98조 보유...인수·합병 주목

2014년 태양전자 사업에서 철수했고, 태양전자 솔라 셀(solar cell) 기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삼성정밀화학은 롯데에 매각됐다.

LED 사업도 난항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LED 조명 관련 판매, 마케팅 등 해외 사업을 중단했다.

이듬해에는 사업팀으로 조직이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LED 사업팀 일부 인력을 DS 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로 전환 배치하며 사업 철수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료기기 사업은 GE, 필립스, 지멘스 등 기존 업체의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은 2012년 메디슨을 인수하며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했지만, 2016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업체 '레이'를 매각했고, 2018년에는 인체용 체외진단기기업체 '넥서스'를 매각했다.

삼성은 5대 신수종 사업을 선정한 지

10년을 지나오며,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5대 신수종 사업 중 취약한 LED 사업은 조명 대신 부품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사업은 삼성메디슨을 통해 영상진단기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며 초격차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발언을 놓고 2016년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하만(Harman)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은 97조53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에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의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지난해 선포한 점을 미뤄볼 때 이미지센서, AI, AP, 통신용 모뎀 기업 등의 M&A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性·學·國 불문 인재등용 일자리 창출도 '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은 신사업 확대와 인재 등용,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창조 등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대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1993년 이견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버금가는 이재용의 '뉴 삼성' 선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6일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승계와 무노조 경영 등 발언 수위는 예상을 넘어서 파격에 가까웠다.

이를 위한 인재상도 내놔다.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삼성의 인재 등용 기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이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고 말한 만큼 우수 인재를 미리 선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신입 공채를 지난해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고 가상(Virtual) 형식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고용 실험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이견희 회장도 5대 신수종 사업 발표 당시 삼성 계열사 사장들에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아서 실업 해소에도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신사업 추진과 인재 등용의 궁극점은 기업가치 향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회사 가치, 신사업, 인재 등의 발언은 새로운 삼성, 새로운 미래를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삼성의 움직임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직속 **보타나은 농어촌**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RW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 “경제 전시상황”...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일자리 창출

## 경제위기 극복 방안

국가기반시설·AI기술 결합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기업 U턴·해외 첨단산업 유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19번을 사용했다. ‘위기’라는 말도 15번이나 했다. 둘을 합치면 경제위기가 된다. 대책으로 제시한 ‘선도’는 8차례다. 현시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코로나’와 ‘방역’은 각각 6번과 5번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남북’이라는 표현에서 절반만 나왔다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 있고,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대책이라는 걱정거리와 한반도 평화라는 이상적 지향점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걱정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했다. “실적의 공포가 영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주요 내용

-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목표**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
  -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245조원 투입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중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정망 확충
  -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
  - 생명·안전 우선하는 연대·협력 4대 과제 제시

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표현했다.

대책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고 했다.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디지털 경제는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축적

하고, 활용하는 작업에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면서 “그 자리를 대폭 마련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일자리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

업, 투자 유치도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 “세계 최고 수준 방역 시스템 갖춰”

방역협력 통해 남북 관계 개선  
‘고용 안전망’ 업그레이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뤄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가장 큰 위협은 고용문제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히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연설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언급했던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나 오자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은)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 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개헌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일환 기자 whan@



부모님께



부부사이에도



선생님께



# 고맙다 마그비!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액상형으로 흡수가 빠른, 마그네슘 제제

## 마그비스피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 함유 (마그네슘으로서 150mg)



마그비  
연질캡슐도  
있습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31-002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코로나궤 위기’ 입증 어려워… ‘혈세 퍼주기’ 비난 불보듯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구분 가이드라인이 없다

총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원 업종-기업 선정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종 간의 구분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면서 향후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인한 위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 산업에 대해 공격자금을 무슨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가도 속제로 남게 됐다. 실질적인 구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입될 경우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7대 기간산업 구분… 업종 간 형평성 논란 =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수혜 업종을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공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선박·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으로 우선 규정했다.

자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는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여파가 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업종을 규정할 데 이어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당국에도 여지를 남겨 두었다.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부 빠져 있는 업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업종 간의 형평성이다. 우선 ‘업종 구분’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과 수혜에서 제외되는 업종 간의 온도 차이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

## ‘두산중’ 코로나 자금 지원 특혜 시비 자금 경색 등 코로나 이전 위기 국책銀 ‘회사채 보증 별개로 봐야’

업종으로 뭉뚱그려 구분된 탓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업종에 속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배제되고 반대로 사정이 낫더라도 지원업종에 속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가령 올해 1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및 통신업종에 속한다. 한전이 원한다면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손실이 예상되는 정유업은 그렇지 않다. 최근 정유업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영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시행령 최종안에서도 정유업이 빠진다면, 이들은 금융당국의 자율성에 기대야 한다.

정유업을 비롯한 산업들이 빠진 데는 일종의 ‘경영 여간’이 어렵지 않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이들은 단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기반이 무너진 항공업계나 해운산업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법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업종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다. ‘코로나 여파가 해당 산업의 기반을 무너트렸느냐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기간산업처럼 덩치가 큰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것도 현명하다”며 “사이즈가 큰 경우는 미리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지원은 코로나 때문? = 구분의 모호함이 크게 드러나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코로나 사태로 자금경색을 겪었다. 전단계 등의 차환 발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주채권 은행인 산과 최대 채권자인 수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 원 지원을 공식화했다.

산은도 밝혔듯,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자금 조달의 경로를 막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코

## 모호한 기준이 낳은 형평성 논란

### 대규모 손실 우려 정유업 배제

### 흑자 예상 한전은 수혜 대상 포함

로나 위기’로 인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두산중공업 지원을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코로나 대책에서 일부 지원된 부분도 있다”라며 “회사채 보증은 기존 채권에 대한 연장인가가 코로나 대책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기간산업의 주요 축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그간 기반이 무너진 것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냉정한 구분법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코로나와 별개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유동성의 공급만 책임지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존 채권의 연장과 더불어 추가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 국책은행은 지구안을 제출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 자금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 지원은 특히 최근 어려워진 회사들, 오래전부터 무너져있는 회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두산중공업은 이 전에 어려워진 것도 있고 정책적인 것과 연관이 됐지만,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명확하다고 보는 항공사도 어떤 논리를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LCC와 경쟁에서도 밀린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정치적인 판단 크다” = 전문가들은 이번 기간안정기금의 조성이 필요했다면서도 모호한 규정이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좀비로라도 버텨야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

## 전문가가 말하는 부작용

### 위기 입증 어려운 한계기업 연명

### 정부 ‘기업 존폐’ 판단 특혜 우려

는 기회가 사라지는 부작용은 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은 한계기업까지 돕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판단해야 하는데 기간산업기금으로 구분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의 여지가 커지는 게 사실이다”라며 “그나마 사태가 끝난 후에 지원 논란이 있었다면 과감히 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독단적 구분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지원 기업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 싶다. 잘못하면 없어져야 할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 것이니까, 특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객관적 기자 jinsan@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

- 1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2 해상운송업, 항공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6 전기업
- 7 전기통신업

※소관 부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음

### KDB산업은행의 긴급 지원 규모

※출처: KDB산업은행

- LCC**
  - 대상/금액: 저비용 항공사(LCC) / 3000억 원+a
  - 주요 내용: 무담보 긴급 대출, 추가 지원 가능성
- 중공업**
  - 대상/금액: 두산중공업 / 1조 원+a
  - 주요 내용: 수출입은행과 5대 5로 크레딧 라인(한도성 대출) 제공
- 항공업**
  - 대상/금액: 아시아나항공 / 1조6000억 원
  - 주요 내용: 2019년 4월 수출입은행과 5000억 원 영구채 인수, 8000억 원 한도성 대출 등 총 1조6000억 원 지원, 잠재 지원 대상
- 제조업**
  - 대상/금액: 쌍용자동차 / 미정
  - 주요 내용: 2020년 1월 마힌드라그룹이 산업은행에 1700억 원 지원 요청, 잠재 지원 대상
- 100조 원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 대상/금액: 정부/총 16조6000억 원
  - 주요 내용: 중소기업 대상(필요시 대기업 포함)

## 인터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獨 등 선진국서도 적극 자금 수혈 기업 상황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지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관련해 ‘대기업 긴급 수혈’이라는 찬성 의견과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비판이 오간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위원회는 6일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투데이는 8일 코로나19 이후 기안기금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이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기안기금의 △필요성 △운영 계획 △실효성 등을 점검했다.



뉴시스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기간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경제 안정화 기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간산업 기업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 지원 대상은 구체적이지만 조건은 추상적인데 “기간산업은 업종과 기업에 따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다.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지원 조건을 명시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금의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업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 지원 심사나 운용에서 감시, 통제 장치가 없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기금도 정부 보증 형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는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인사를 2명 포함시켰다. 또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은행은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는다.”

-결국 국책은행이 관리하면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금운용

귀책사유, 일률 적용 부적절 위기 극복 최우선 탄력 지원

국회 상임위 추천인사 2명 포함 국감 등 최소한의 감시장치 마련

심의회 민간위원 위주 구성 균형·책임감 있게 기금 운용

손실 우려 때만 의결권 행사 기업 경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

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자금 지원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심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될 것이고, 국회 추천 인사도 포함돼 균형감과 책임감 있게 기금이 운영될 것이다.”

-현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기금이 기업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도 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 기업의 부도와 국가 경제 간 상관관계가 있다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 전후방 산업 등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대우그룹 부도와 동양사태도 한 기업의 부실이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 기업의 부실이 산업 생태계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전이되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실이 일어나기 전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면 기간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하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에 무분별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는 전대미문 사태다. 기업의 경영 실패 등 일반적인 귀책사유 원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시점은 위기 극복이 더 중요한 상황이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1대 정부위원장 유력 후보다. 차후 입법 계획은

“다음 달 금융그룹 감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 감독은 해외에서도 이미 정착된 국제 규범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 정치 복원 이룰까

새 국회 여야 원내대표 공합은 둘 다 정책위 의장 거친 전략동상임위 원 구성 협상 첫 시험대 김, 文정부 개혁입법 총력 예고 주, 巨與 견제하며 상생 노릴 듯

여야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에 4선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잇발을 든 가운데, 각각 '전략가'로 정평이 난 두 신임 원내대표가 어떠한 협치를 드러낼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8일 당선 일성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협상 경험이 많고 정책위 의장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저희와 상생, 협치를 위한 틀을 잘 만들어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대표적인 국회 신사로 내공이 깊으신 분"이라고 평했다. 두 사람의 첫 행동은 9일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졌다. 조문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상중이라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어 어

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180석에 이르는 '거여'를 상대해야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평소 합리적·논리적인 성격으로 평가받으며 정치권에선 '부딪히기보다 협상하는 전략가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개인 협상에서 기여했다.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 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살아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실무 또는 정책 측면에서 정치 천재'라고 꼽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특보단장, 정책위 의장 등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미애 대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 의장으로 중용되며 역량을

입증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 동기'다. 반면 수도권 지역 구인 김 원내대표와 영남 4선인 주 원내대표 간 공통 분모는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1964년생 전남 순천, 주 원내대표는 1960년생 경북 울진 출생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2년 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입법 속도전을 펴는 모양새이며, 통합당은 세가 줄어드는 만큼 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두 원내대표는 입증받은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먼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첫 관문이다. 주 원내대표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등 핵심 상임위를 얼마만큼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에서는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관련 3차 추경을 포함한 여러 대처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등 쟁점 현안에서 어떠한 협상 기술로 여야 간 밀고 당기기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제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9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희망 상임위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SOC 공약·주거복지 등 공약 이행 이해관계 맞닿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일부 인기 분야로 몰려 향후 배정에 관심을 모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원의 50~60%는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 이슈가 화제였던 19대 국회 등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약 이행 등 지역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이러한 상임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당선인들의 지역구 공약 중 사회적 접자본(SOC) 관련 공약이 다수 차지한 것과 관련 있다. 국토위는 사회적 접자본(SOC)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국토 관리, 주거 복지, 건설, 교통, 물류, 항공 안전 등의 현안을 다룬다. 관련 예산도 직접 다룰 수 있는 국토위는 지역구에 보이는 성과를 남길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단단한 영향을 미쳤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국토위에 속해 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경기 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내세웠던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안민석 의원 역시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았던 윤관석 의원은 총선 슬로건으



로 '3선의 힘,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서 뉴딜 정책,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토위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5선이 된 서병수 통합당 당선인은 산업위 활동을 선호할 전망이다. 그는 "아무래도 중진이니 부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통합당 4선이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중소기업이 많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위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서는 안호영·한병도·문정복·박영순 당선인이, 통합당에서는 김미애·김은혜·최형두 당선인 등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김성환·송갑석·신영대 당선인 등은 산업위를 희망한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를 책임 있게 챙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10일 낮 12시 기준>

#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 총 54명... “7000명 방문한 듯”

## 코로나19 재확산세 우려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누적 54명으로 늘었다. 이 중 11명은 클럽 방문자의 가족과 동료 등 2차 이상 전파 사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4명 증가한 1만8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4명 중 8명은 해외유입, 26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발생은 대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진단검사를 통해 파악된 사례 등 2명을 제외한 24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사

11명은 클럽 방문자의 가족·동료 인적사항 파악 안돼 조사 난항

당국 “개인정보 최대한 보호... 역학조사·진단검사 협조해 달라”

레다. 0시 이후 이날 12시까지 11명이 추가 확진돼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며, 감염경로별로는 43명이 클럽 직접 방문자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선 인적사항이 파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10일 낮 12시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제주
30	14	6	2	1	1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많아 방대본이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월 2일 방문자를 중심으로 1600~1700명 정도로 말했는데,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6000~7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클럽 방문자들에게 역학조사

와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노출된 분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동료들, 또는 사회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확진자 정보·동선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해선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클럽의 최초 확진자 2명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선형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2명의 최초 확진자가 클럽 집단감염의 감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처음 보고된 지표환자 1명과 또 다른 확진자 1명 정도가 발생이 빠른 상황이어서 감염경로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차 전파로 인해서 발생한 11명은 대부분은 직장 동료이거나 지인이거나 가족이며, 그분들로 인한 3차 전파 사례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韓·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등 직원 215명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텐진으로 향하는 탑승 수속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중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활용해 중국에 입국한다. 연합뉴스

## 꼭꼭 숨은 '이태원 프리덤' '제2 신천지 사태' 불러오나

나흘새 신규 확진자 4명→34명 미확진 상태에서 추가 전파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파르다. 신규 확진환자 증가세만 보면 신천지(신천지에수도 증거장막성전) 사태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나흘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7일 4명에서, 8일 12명, 9일 18명, 이날 34명으로 늘었다.

추세만 보면 2월 신천지 사태와 유사하다. 31명 확진자가 확인된 2월 18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19일 15명, 20일 36명, 21일 74명으로 늘었다. 2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909까지 치솟았다. 최근 확진자 규모는 2월보다 작지만, 공간이 밀폐돼 있고 방문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클럽의 특성상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아무래도 (최초 확진자가 다녀간) 그 기간 방문했던 사람 전체를 다 노출자로 보고 그중에서 확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노

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들 면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성률은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럽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방대본으로선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클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제 커밍아웃’ 우려로 방문자들이 검사를 꺼리는 실정이다.

가장 큰 우려는 미확진 감염원을 통한 추가 전파다. 미확진 감염원의 접촉자들은 본인이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다시 추가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파가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직장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사회 유행이 재현된다.

정 본부장은 “건강한 청장년층은 큰 증상 없이 회복되지만 이런 유행이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노출되면 면적이 약한 사람들은 광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상히 알고 있다”며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에 소재한 유흥시설, 클럽에 방문한 분이라면 반드시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유가 20달러면 美 세일업체 140곳 파산... 금융부실 우려”

한은 '저유가 세일산업 영향' 손익분기점 50달러 밑돌아 이달 생산중단·투자감소 시작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 세일업체들의 대규모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세일업체들의 손익분기 수준인 50달러 내외(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를 밑돌면서 이미 생산중단과 투자감소가 시작됐다. 이 같은 영향은 금융시장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저유가 지속이 미 세일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세일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이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1~3월) 미 에너지기업들의 기업활동지수는 마이너스(-) 50.9를 기록해 2016년 통계편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 1일 기준 미 원유 활동시 추기수는 325기로 2016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S&P500 에너지지수도 272.28에 그치고 있다.

저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누증에 따른 저장능력 부족 등으로 생산중단 기업이 확대되고,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파산기업도 늘 것이라 관측이다.

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도 위험이 증대되고, 회사채 시장 내 신용경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은

행의 에너지부문 대출비중은 작년 4분기 기준 768억 달러로 전체 대출 대비 1.7%에 불과하다. 다만, 일부 중형 은행의 경우 대출비중이 20%에 근접하는 등 신용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는 부채 상환 어려움과 전례 없는 파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미 달러스런준(Fed)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기업 중 40%가량은 WTI유가 배럴당 40달러로 지속될 경우 향후 2년 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르웨이 원유 컨설팅 업체인 리스타트 에너지(Rystad Energy)는 WTI가 배럴당 20달러를 유지할 경우 미 세일업체는 올해 140개, 내년 393개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 제조업으로 변진 '코로나發 고용쇼크'

종사자 수 14개월 만에 감소 전환 수출 악화 영향... “유턴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고용 충격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제조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371만 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1000명(0.3%)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종사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미 2월부터 제조업에 대한 코로나19발(發) 고용 충격 우려가 감지됐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시화된 2월 제조업 종사자(372만8000명)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문제는 코로나19발(發)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음식 및 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에 더해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도 고용 충격이 가시화될 경우 실업 대란이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3월 제조업의 비자발적 퇴사자(상용·임시용직 근로자 기준)는 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3.9%나 급증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감소는 제품 생산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시장 또한 악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대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출이 24.2%나 급감했다.

추광호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유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원전·석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 부인하지만 고민... 한전 적자도 인상 요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정부가 2017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발표 당시 못 박은 말이다. 요금 동결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로 특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

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이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의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과 석탄을 합해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로 반토막 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다.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키운다.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걸리면 어찌죠?”

하루 2만여 건의 상담전화 중 대부분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걱정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마음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SK하이닉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2Q 바닥 친다” 희망곡... 지표와 따로 노는 세계증시

### 경제지표 끝 모를 하락세에도 주요국 증시는 회복... 괴리 증폭 “투자자, 승자 선별작업 진행중”

세계 경제와 주요 주가지수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글로벌 경제지표는 연일 최악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주요국 증시는 회복 기조에 있다.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세계 경기가 2분기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고 9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4월 실업률은 14.7%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농업 부문 고용은 2050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날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1.9% 급등해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다우지수는 3월에 전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37% 폭락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약 30%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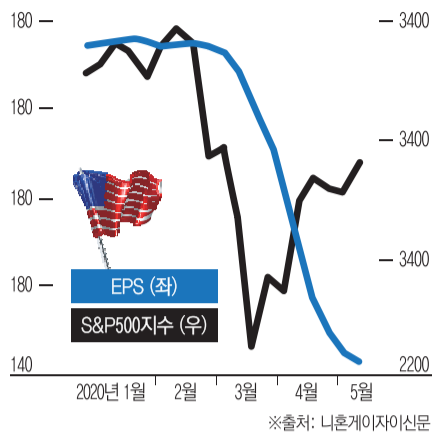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도 같은 기간 31% 추락해 바닥을 찍고 나서 22% 상승했으며 전날 고비가 되는 2만 선을 회복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하이테크 주식으로 구성된 미국 나스닥지수다. 이 지수는 전날에 지난 3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9000선을 탈환했으며 코로나에 의한 시장 혼란 이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약 7% 근접했다.

유럽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도 3월 저점 이후 22% 올랐으며 세계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MSCI올월드지수도 28% 상승했다.

특히 이런 증시 반등은 경제지표 악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JP모건체이스와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발

### 뉴욕증시 S&P500지수와 S&P500기업 주당순이익(EPS) 추이



표하는 글로벌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에 2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의 36.8을 밑돌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향후 1년간 예상 기업 순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주당순이익(EPS)도 주가와 역행하고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는 3월 저점 대비 약 30% 올랐지만 구성 종목 EPS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례적 재정 투입과 공격적 금융완화 정책이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각국의 재정 투입 규모는 총 8조 달러(약 9768조 원)에 이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정크본드(투기등급 회사채) 매입에도 나서는 등 기업 신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증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승자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재택근무 정착이나 가정 내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 기반을 지탱하는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 주가는 이미 3월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5G로 코로나 퍼진다?... ‘황당 음모론’

호주 멜버른의 의회사당 밖에서 10일 경찰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에 반대 시위를 하던 중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5G 이동통신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거나 빌 게이츠가 백신에 위치추적기기를 심어 세계 지배를 꾀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도했다.

호주 멜버른의 의회사당 밖에서 10일 경찰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에 반대 시위를 하던 중 과격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5G 이동통신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거나 빌 게이츠가 백신에 위치추적기기를 심어 세계 지배를 꾀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도했다.

## 빈곤이 부른 ‘코로나 2차 폭발’... 신흥국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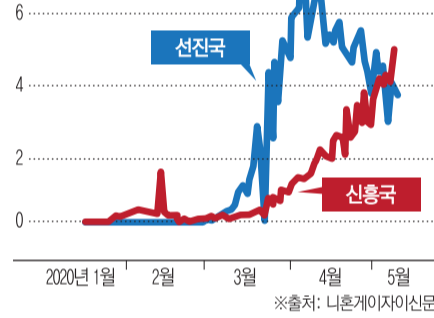
### 취약한 의료체계에도 경제재개 서둘러... 글로벌 경제 新리스크로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해 2차 감염 폭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10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신흥 개도국의 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는 이달 초 선진국에 역전한 것은 물론 8일 그 수가 5만 명을 넘었다. 특히 신흥국은 취약한 의료체계에도 빈곤층의 불만을 줄이고자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어 감염자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경종을 울렸다.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를 기초로 닛케이가 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를 유엔 기준에 따른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으로 분류, 집계한 결과 선진국은 4월 중순 이후 새 환자 수가 40% 이상 감소했지만 신흥

###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개도국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 러시아는 병원이나 군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9일까지 7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웃돌았다. 브라질도 신규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은 물론 하루 사망자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아프리카도 급증이 우려된다. WHO에 따르면 현재 누적 감염자 수는 4만여 명이 고 사망자는 약 1300명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년 만에 최대

4400만 명이 전염돼 19만 명이 사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 의료체계가 취약해 전염병 확대가 의료붕괴, 더 나아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WHO에 따르면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중의료 관련 지출은 3%로, 선진국의 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감염 확대가 눈에 띄는 러시아와 브라질, 이란, 인도, 멕시코 모두 그 비율이 세계 평균인 6%에 못 미치고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이들 신흥국이 감염 폭발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안한 경제상황에 서둘러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도는 3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최근 감염자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인정했다. 러시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감염 상황에 따른 행동 제한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12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활동 재개를 허용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코로나도 꺾지 못한 中 마오타이 ‘렐리’

### 1분기 매출·순익 증가... 시총 600억 달러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주류 수요 부진 우려에도 중국 명주의 대명사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이하 마오타이)가 힘찬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꼽히는 마오타이는 전날 0.2% 오른 주당 1314.61위안(약 23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마오타이는 3월 19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 시가총액이 약 600억 달러(약 73조 원) 증가했다. 특히 마오타이는 최근 10거래일 중 7일간 상승을 기록,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전체 증시회복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마오타이 주가는 최근 3개월간 22% 이상 뛰었으며 같은 기간 중국증시상하이종합지수는 약 0.7% 상승했다.

마오타이의 렐리는 레스토랑 섀다운, 사회적 모임 중지 등으로 전 세계 주류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마오타이는 글로벌 동종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 분기 마오타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은 16.7% 증가했다.

중국에서 부상하는 중산층들이 수요를

###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 추이 (단위: 위안, 현지시간 종가기준)



뒷받침한 데다가, 유통업자들이 향후 판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오타이 술 중에서도 최상품을 비축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 최고 명주로 자부하며 중국의 상징적인 위치를 지켜온 마오타이는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매장에서 품귀 현상이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술이다. 통상 5년간의 긴 제조 기간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전망 역시 밝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 속에서도 약진을 보여준 마오타이는 바이러스 종식으로 인한 소비 회복이 본격화했을 때,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관들은 마오타이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목표주가를 1500위안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테슬라 공장 재가동 막으면 본사 이전” 머스크,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와 갈등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사와 향후 사업장을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공장 재가동을 두고 지역 정부와 갈등을 빚는 데 따른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최후의 결정타였다”며 “테슬라는 이제 본부와 향후 사업체를 텍사스나 네바다로 즉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프레몬트의 제조 활동을 조금이라도 유지할지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며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남은 마지막 자동차 회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머스크는 프레몬트 공장이 있는 앨리미더카운티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출되지 않았고 무식한 앨리미더의 보건국장 대행이 주지사, 대통령, 헌법의 자유와 단순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을 향해 앨리미더카운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캘리포니아주 앨리미더카운티가 공장 재가동을 제지한 데 대한 강력한 반발의 뜻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앨리미더카운티의 프레몬트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공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3월 23일부터 생산을 멈췄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서점과 책방 등 일부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가했고, 머스크 CEO는 7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8일 오후부터 프레몬트 공장을 제한적으

로 가동한다”고 알렸다. 캘리포니아 내 제조업 활동을 승인한 개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성명에 근거해 프레몬트에서 생산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앨리미더카운티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에리카 팬 앨리미더카운티 보건국장 대행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테슬라는 아직 자동차 생산을 재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이나 자택대피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당시에도 자택 대피령이 “모든 헌법적 권리에 반해 시민들을 강제로 자택에 감금하는 것”이라며 “파시즘적”이라고 성토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 은행권, 언택트 서비스 차별화 승부수

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금융권도 비상대응 체제를 풀고 정상화에 돌입하고 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비대면 경제로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태블릿PC를 통해 소비자에게 모바일 상담을 해주는 ‘스마트 화상상담 시스템’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직원은 태블릿 브랜드(S-TB) 앱을 활용하며, 고객은 URL을 통해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면 된다. 고객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직원과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다.

고객이 영업점 직원에게 신청하면 화상 채팅으로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세무,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 가업승

## 신한, 스마트화상상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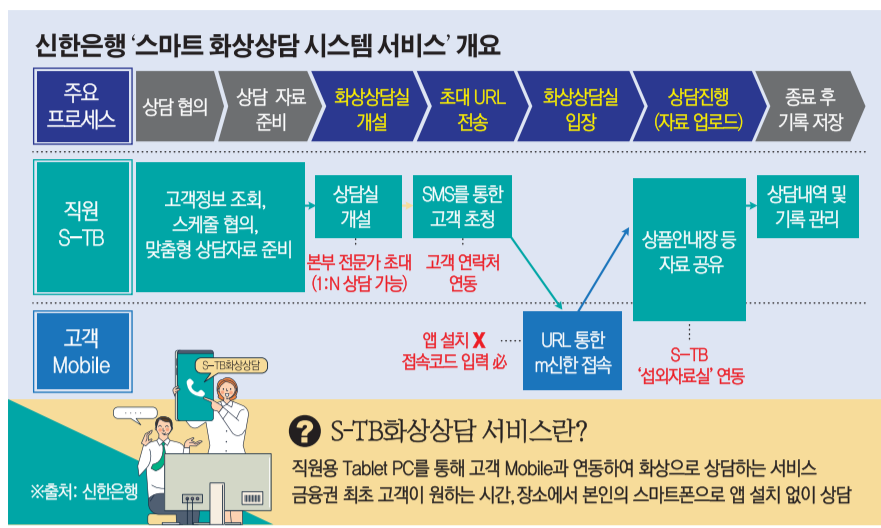
세무·부동산·투자·퇴직연금 등 모바일로 전문가 상담·자산관리

## 국민,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영상통화로 28종 상품 가입 가능  
대면 수수료보다 최대 0.3%p ↓

계, 퇴직연금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1대 1 맞춤 상담부터 최대 5명까지 동시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

예컨대 신한금융개인자산관리(PWM) 센터가 없는 지방 금융 소비자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로 컨시어지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화상 상담은 유선 통화와 달리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며 “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자간 화상 상담을 통해 차

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추후 모바일뱅킹 앱인 쏠에 해당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활용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화면을 공유하거나 녹화, 녹음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경쟁 은행들도 비대면을 활용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11일부터 영상 통화로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받는다. 기존에 특정금전신탁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고객은 영상 통화로 ‘신탁비대면센터’ 전문 상담원의 상품 설명을 듣고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가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국내의 주식형 및 혼합형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 28종이다. 대면 상품보다 0.2~0.3%포인트 인화된 보수가 적용된다. 김범근 기자 nova@

## 골목상권 살리는 따뜻한 ‘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전통시장 상품권 100억 구입

우리금융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총 100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해 착한소비 운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8일 서울 중구 본사 인근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함께 방문해 시장 상인의 영업 상황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을 구입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직원의 사기진작 및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분기당 일정 금액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급여



손태승(오른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왼쪽) 우리은행장, 박철복 남대문시장 남산상회 대표.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성 복리후생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하세요

첫 주 ‘마스크 5부제’ 방식 적용  
세대주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8월 이후 미사용 잔액 국고 환수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1일 월요일(1·6), 12일 화요일(2·7), 13일 수요일(3·8), 14일 목요일(4·9), 15일 금요일(5·0)이며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

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분사직영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분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고용안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b>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b>내 PC 원격접속</b>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b>채팅&amp;메신저(WE톡)</b>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	<b>화상회의</b> 국내외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며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문자서비스</b>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b>팩스</b> 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b>메일(1G)</b>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b>전자결재</b>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도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b>웹오피스</b>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기밀정보관리</b> 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도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인사이드/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산서 등 기밀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b>WE드라이브(10G)</b>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b>일정관리</b> 일정 초대와 공유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b>할일관리</b>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 LG “배터리 안전성 더 높인다”...美 ‘엘리먼트’ 투자

**배터리팩 전력량·수명 늘려  
최대 50% 저렴한 시스템 구현  
오류 발생 셀 격리, 화재 차단**

LG그룹이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 사업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룹 벤처투자회사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미국 배터리 연구개발(R&D) 기업 엘리먼트에 에너지(elementenergy)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특히 마이클팔콘 LG테크놀로지 투자이사는 직접 엘리먼트에너지의 이사회에 참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엘리먼트에너지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안정성과 효율성, 수명 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적응형 셀 학습 및 관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대형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안전성, 에너지 처리량 및 수명을 높여 준다. 또 기존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보다 최대 50% 낮은 수준의 스토리지 비

용으로 에너지 스토리지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셀은 안전을 위해 격리되고, 다른 셀은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도 갖췄다. 지난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해에도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옵토닷(Optodot)’과 미국의 배터리 재료와 공정 관련 스타트업

인 ‘포지나노(forge Nano)’에 투자한 바 있다. 구광모 LG 회장은 지난해 그룹의 대표적 소재·부품 개발 현장인 LG화학 기술연구원을 찾아 미래 R&D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 등을 언급하면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사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그룹 차원의 첫 투자 회사다. 지난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총 4억2500만 달러를 출자

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다. 2018년 11월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 및 그룹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올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LG의 배터리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신기술 투자를 통해 배터리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두산 핵심 계열사 2분기 실적 개선 ‘희소식’

**굴착기·연료전지 수주 잇따라  
인프라코어 영업익 전망 19%↑  
퓨얼셀 연간 목표치 42% 달성**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퓨얼셀이 2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계절적 변수 등 실적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변수들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퓨얼셀은 지난달 각각 굴착기, 연료전지 사업에서 수주 낭보를 올린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달 중국 북서부 칭하이 등 3개 지역에서 총 20대의 대형 굴착기를 판매했다.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퓨얼셀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올해 1분기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영업손실 46억 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연료전지 연간 수주 목표(142MW)의 42%인 60MW를 수주했다. 수주 행진을 이어간다면 무난히 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퓨얼셀의 올해 목표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4523억 원, 250억 원이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납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영업이익의 또한 2분기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부진했던 두산밥캣 역시 실적 개선을 위해 고객사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퓨얼셀의 선전은 두산그룹에 희소식이다. 경영난에 처한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채권단에 자구노력을 통해 3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 지주사인 ㈜두산은 자산 매각은 물론 두산중공업 증자 참여를 추진한다. 두산그룹 오너가들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재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당과 상여금을 받지 않고 급여 또한 대폭 반납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꾸준한 실적을 기록한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車 내부 자동 살균’ 발 빠른 현대차

**사람 내리면 자외선 램프 작동  
코로나19 위생문제 대응  
‘탈부착형’ 시트 커버도 개발중**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내에 자외선(UV) 살균 램프를 장착하거나 탈 부착형 시트 커버를 도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려가 커진 위생 문제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10일 “차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큰 기술은 UV 살균 장치”라고 밝혔다. UV 살균은 의학적으로 세균 제거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현재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의 소독에 사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차내 천장에 UV 램프를 설치해 시트, 바닥 매트, 대시보드, 핸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부분을 한 번에 살균할 계획이다. 사람이 차에서 내린 뒤 살균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줄일 예정이다. 무드 램프 같은 실내등에 UV 살균 기능을 넣어 살균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 역시 개발 중이다. 광촉매 원리를 차내에 적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없애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광촉매는 광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화합물을 말한다. 광촉매 모듈에 UV 등을 쬐어 살균 물질을 생성해 공기 중 세균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방식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다만, 균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하려면 부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직물 시트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퍼나 찌꺼기를 활용한 탈 부착형 시트 커버 역시 개발 중이다. 그룹 관계자는 “시트가 오염되면 커버만 벗겨내 세척할 수 있어 공유 차와 사업용 차에도 적용하기 쉬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 한화솔루션, 日 독점 광학소재 국산화

**신사업 ‘비전케어’ 본격화  
세계 두 번째 고순도 XDI 양산  
범용 제품보다 가격 10배 비싸**

한화솔루션이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자일릴렌 디아소시아네이트(XDI)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일본 기업이 독점 공급하던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상업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이달부터 전남 여수사업장에서 고순도 XDI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여수사업장의 생산 규모는 연 1200톤이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따라 일본 미쓰이케미칼(연산 5000톤)에 이어 세계 두 번째 XDI 생산업체가 됐다. XDI는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한 종류다. 특히 순도 99.5% 이상인 고순도 XDI는 범용 이소시아네이트 대비 약 10배 이상 비싼 고부가 소재다. 투명성과 굴절성이 우수해 기존 렌즈보다 약 30% 얇고 선명한 고급 광학 렌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한화솔루션은 범용 사업에서 쌓은 공정 노하우와 연구·개발(R&D)투자에 힘입어 고순도 XDI 국산화에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순도 XDI 역시 한화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TDI 제조 역량에서 시작됐다”며 “최근 친환경 가소제인 에코

테치(ECO-DEHCH), 산업용 접착제인 수침 석유수지 등 독자 개발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차례차례 상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XDI 국산화로 신사업인 ‘비전케어’(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쓰이케미칼의 시장 독점으로 XDI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광학 렌즈 생산업체들 역시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광학 소재 분야를 시작으로 XDI 거래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XDI를 활용한 고부가 제품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XDI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주목받는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가변형 디스플레이와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OCA(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고급 잉크, 도로, 친환경 식품 포장용 접착제, 전자 제품 포장 필름 등으로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XDI 상업 생산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고부가가치 부품 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육성 취지에 발맞춰 앞으로도 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현대오일뱅크, 원유 정제 온실가스로 시멘트 원료 생산

**태경비케이와 탄산칼슘 제조 협약  
300억 투자... 내년 하반기 완공  
석회석 채굴보다 원가경쟁력 우수**

현대오일뱅크가 세계 최초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건축자재와 종이로 제품화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경기 용인시 중앙기술연구원에서 태경비케이와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태경비케이는 국내 대표 석회제조사로 온실가스를 활용한 탄산칼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부산물로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친환경 기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현대오일뱅크는 태경비케이와 기술협력



을 통해 올해 안에 파일럿 테스트와 공정설계를 마무리 짓고 2021년 하반기까지 300억 원을 투자, 기존 대산 공장 내 연산 60만 톤 규모의 탄산칼슘 생산공정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제품 판매와 온실가스 저감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은 연간 100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오일뱅크의 이번 설비 도입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중추하던 정유사가 이를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탄산칼슘은 각종 산업 현장에 널리 쓰여 수요가 안정적”이라며 “자연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가공해 만드는 것과 비교해 원가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장기적으로 해외 정유사 등에 기술 판매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투자포인트

두근두근 가슴 뛰는

재테크 역전

만루홈런 프로젝트

하나고배당금융테크랩

하나금융투자와 함께하는 2020 재테크 역전 만루홈런 프로젝트

# 하나고배당금융테크랩

**투자포인트** 반도체, 스마트폰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안정적인 고배당이 예상되는 '국내 3대 금융지주'에 함께 투자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0.7%, 후취연1.0% • 적립식형 : 후취연1.2%

### • 가입 EVENT [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가입금액별 은누리 상품권 증정
거치식	1억원 5만원, 8천만원 4만원, 6천만원 3만원, 4천만원 이상 2만원, 4천만원 미만 1만원
적립식	1만원 (30만원,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손님)

### • 추첨 EVEN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천억원 돌파 시마다 가입손님 대상으로 추첨, 럭셔리 가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hanaw.com](http://m.hanaw.com) | 1588-3111

[이벤트 유의사항] \*상품권에 대한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 / 추첨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 추첨 경품은 이벤트 종료 익월 영업점에서 수령가능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단, 기 조건 충족 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가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발생시 투자자 귀속 \*랩이카운트는 고객 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 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519호(2020.04.06~2021.04.05) CC브랜트200402-0018



# “코로나궤 위기, 고용 안정에 최선”

**세계 ‘한국판 뉴딜’ 동참  
“충격 크지만 새로운 도약 기회  
규제 완화 등 활력 회복 절실”**

경영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민간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앞에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은 크지만,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 등 강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하면 충분히 선도형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의적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경영계는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참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그간 약화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으로 최대한 일자리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다.

이윤리 대한상공회의소는 문 대통령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에 동의하면서도, 낡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활력의 회복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협회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강국 도약 등은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LG화학, 인도 사고 수습 총력 신학철 부회장, 직접 현장 간다

**가스 누출 직후 비대위 가동  
유족 지원·공장 안정화 주력**



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사고 원인조

LG화학이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커 신학철(사진) 부회장이 직접 현장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본사와 현지법인이 사고 현황과 대책 수립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LG 그룹도 LG화학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 공장에서는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했다. 인근 마을 주민 800~1000명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SM(스타일렌도노머) 저장 탱크에서 유증기 누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장의 가스 누출은 통제된 상태다.

이번 사고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인도 환경재판소로부터 5억 루피(약 81억 원) 공탁을 명령받았다. 환경재판소는 산업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법원이다.

LG폴리머스는 전날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폴리머스는 “이번 사고로 피해

사, 재발방지 대책 및 치료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최우선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정부기관과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인력 지원이 어려워 현지 법인장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추가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LG화학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신 부회장이 직접 인도에 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LG화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관련 생산설비 폐쇄라는 초강수 조치를 하며 신뢰 회복에 나선 바 있다.

한편, LG화학은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PS) 수지 제조업체 ‘힌두스탄 폴리머’를 인수하고 이듬해 LG폴리머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LG폴리머스의 공장 규모는 66만㎡, 직원은 300여 명으로, 정선기 법인장 등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지 인력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쌍용차,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청한다

## 2000억 지원 기대...코로나 이전 경영난 기업 제외 가능성

쌍용자동차가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전부터 경영난이 시작된 만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고용안정 및 노사의 자구노력 등이 지원조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달 말 추진되는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청한다. 쌍용차는 신차 개발과 투자 등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 마힌드라가 지원을 약속한 400억 원을 비롯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3600억 원 가운데 당장 시급한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우고 7가지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공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와 장비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정부는 4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이번 기금과 함께 은행권의 기업대출 만기 연장, 추가 대출 등 투·트랙 지원에 나선다.

쌍용차는 일단 정부의 지원 대상(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쌍용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쌍용차는 회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달 초 해고노동자 복직을 마무리했다. 나아가 경영 정상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노사가 복직중단 등에 합의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쇼크 탓에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탓에 쌍용차의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67.4% 급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가족 안전보장**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 수그러들지 않는 '플랫폼 적정 수수료' 논란

**'배민' 수수료 중심 요금제 개편 추진하자 소상공인 거센 반발**  
**"상생법안 만들어 일정수준 유지"... 전문가들 "시장에 맡겨야"**  
**해외 푸드 딜리버리 업체 수수료율 20~30%로 국내보다 높아**

최근 주문·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 논의의 불씨를 당긴 것은 '배달의민족(배민)'이다. 주문·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민은 지난달 1일 '오픈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중심 요금체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히자 소상공인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심지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수수료는 6.8%다. 배달 앱 점유율 2위인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율이 12.5%(앱 결제 시 15.5%)로 정해져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전체를 다 받지 않고, 개별 할

인을 적용한다. '배달통'은 광고 노출 위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8만8000원까지 금액이 구분되고, 모바일 주문의 경우 2.75%의 수수료가 붙는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주문가격과 별개로 1000원으로 고정한 상태다. 다만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기본 5000원의 배달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최소 수수료가 6000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사실상 40%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음식배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2%만 받고 있다.

업체명	국가	수수료율
배달의민족	한국	6.8
요기요	한국	12.5
쿠팡이츠	한국	약 40
우버이츠	미국	28
그랩푸드	미국	20~30
고젝	미국	15~25
메이투완	중국	20
일러머	중국	20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배민과 동종업계인 해외 푸드 딜리버리의 수수료는 더 높다.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했던 우버이츠의 경우 수수료율이 28%에 달한다. 이외에도 미국 그랩푸드 20~30%, 고젝 15~25%, 도어대시 20~30% 등이다. 중국 메이투완과 일러머도 모두 정률로 20%의 수수료를 낸다.

수수료율이 두 자릿수를 넘긴 만큼 반발도 극심하다. 호주 프랜차이즈협회는 3월 음식배달 플랫폼 우버이츠에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메이

투완도 최근 제휴 음식점들로부터 배달서비스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자체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비단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수수료도 높은 수준이란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3%에 달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통해 '상생'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법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조만간 시장이 적정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임재운 서강대 교수는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며 "수수료도 결국 '가격'인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는 매출 수수료 항목으로 구글에 30%를 낸다. 반면 이통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윈스토어 플랫폼의 앱 판매 수수료는 최소 5% 수준이다. 엄청난 수수료 차이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1조6460억 원(78.6%)의 매출을 올리며 1위를 지키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2018년 말 구글에 지불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공간에서 게임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도 안 된 4월 '백기'를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 등을 강조하려면 플랫폼에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도 '혁신'이지만,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강하게 끌어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활동 2년 연장

다음달 말 3차 특구 지정 계획... 하반기 OECD 회의서 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획단은 존속 기한이 연장된 만큼 안정적인 특구 지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 공무원단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 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운

영해 오던 것을 정식 조직화한 것이었다. 중기부는 특구단 출범 1년을 앞두고 조직의 상설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와와의 조율 과정에서 2년 기한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5월 이후 기획단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는 차후 논의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상설화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 비수도권 14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14곳의 특구는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강원 '바이오 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자-충전서비스'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 특례 허용 기한은 2년이며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달 말 3차로 특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사례 발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적극 환영한다"는 화답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 소개·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하반기로 연기됐고, 발표 기회도 미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가 확정 되면 발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KT-육군사관학교 '군 첨단 정보화' 사업 맞손** KT는 8일 육군사관학교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본관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군 정보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5G 전용망 구축과 세부 과제 발굴, 사업 구체화를 통해 육군사관학교를 5G-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박운영(왼쪽) KT 기업부문 사장과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교장이 MOU 체결하는 모습. 사진제공 KT

## "코로나에 中企 도산위험 커져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마련을"

중기부 "제3자 중기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며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도산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흔히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

조조정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절차 진행의 공개성이 낮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이의 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에 보고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원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유연성·비공개성·간소한 절차·신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특히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대원 기자 leedw@

## '바바 도어록' 국가대표 마크 달았다

세계 첫 문 흔들림 방지 장치 등 도어록 관련 독보기술 개발 힘써 우수제품 인증 '브랜드K'에 선정



푸시풀시스템이 개발한 '바바(BaBa) 도어록(사진)'이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로 선정됐다.

송성면 푸시풀시스템 대표는 "바바 도어록이 지난달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부 주관 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브랜드 K'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K는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한 국가 브랜드 지원 전략이다. 중기부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브랜드K'라는 브랜드 파워를 부여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제품에는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이라는 영예와 함께, 브랜드 K 전용 수출바우처가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급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샵사다'의 플랫폼을 활용해 특판전과 전용관이 운영된다.

또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진출 시장 결정, 진출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공영쇼핑에서 릴레이 특판전도 할 수 있다.

2013년 설립된 푸시풀시스템은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금상(산업자원부장관

상) 2회, 서울 국제발명대전 금상,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 금상, 미국 피츠버그 발명 및 신기술전 금상,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전 금상, 중소기업부장관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2017 우수상표, 디자인권 공모전 특허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바바'라는 브랜드의 도어록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다. 푸시풀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문 흔들림 방지 장치와 영구자석을 이용한 돌출 래치 없는 도어록 장치 등 도어록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특히, KAIST 지식재산 AIP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어록에 한정되어 있던 특허 기술을 확대해 '가상블록체인'이라는 특허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 이재훈 기자 yes@

# 봄날 실종된 편의점, 2분기도 '걱정 반 기대 반'

GS25 1분기 매출 전년비 2.9%↑... CU 영업익 29.7% 급락  
신규 출점 상담 줄며 2분기 점포수 순증 둔화 '실적 악영향'  
재난지원금 사용·국내 여행 증가 따른 풍선효과는 긍정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편의점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GS25와 CU(씨유)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제는 편의점 특성상 2분기 역시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편의점은 통상 2~3개월 전에 신규 출점 계약이 이뤄지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창업 수요가 줄면서 2분기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과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국내 여행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1분기 매출은 1조60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5.3% 증가와 비교해 오름폭이 축소됐다. 영업이익(406억 원)이 51.3% 성장한 것은 위안거리다.

라이벌 CU의 실적은 더 부진하다. BGF리테일은 올 1분기 매출이 1조39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9.7% 곤두박질쳤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지인 제주도를 비롯해 병원과 인천 공항 등 특수 점포가 많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초창기인 1~2월만 해도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감염 우려가 적고 근거리 점포가 많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장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개학 연기와 재택 근무 등은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졌고, '집밥'으로 돌아선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창고형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로 물리면서 3월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3월 편의점 전체 매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2.7%)을 기록했다.

부진은 4월에 이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등교 수업은 5월 중

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 6월이나 돼야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의 학원가 매출은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다. 업계는 기존 편의점 4월 매출이 7~8%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편의점 출점 전략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출점 계약은 2~3개월 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1분기 출점은 계획대로 이뤄졌지만, 2분기는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로 오프라인 창업 설명회를 열지 않고 우선으로 돌리면서 최근 출점 상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GS25와 CU 빅2의 올해 신규 출점 목표는 각각 800~900개점이다. 실제 업계에서 예상하는 2분기 순증 점포수는 GS25와 CU 모두 100개점대로 통상 분기별 200개점 전후인 당초 계획에 비해 부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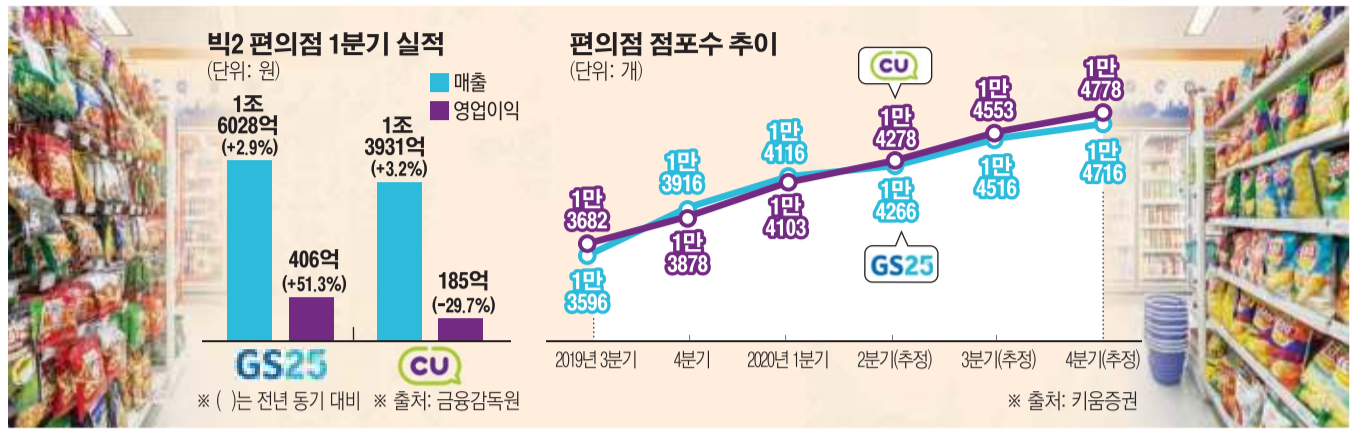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은 점포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편의점 창업 수요가 돌아오는 3분기나 돼야 영업환경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길거리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희소식이다. 게다가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로 편의점 매출의 5%가량을 차지하는 공원·유원지 등의 매출 회복도 기대할 만하다.

특히 긴급지원재난금과 긴급보육지원금이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대형 호재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13조 원)은 8월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편의점은 사용 가능하다.

실제 지자체 지원금과 긴급보육지원금이 사용 가능했던 4월 한 달간 CU의 제로페이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했고, GS25와 세븐일레븐 역시 전월 대비 각각 5배, 3배 늘었다. 편의점들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이 가능한 제로페이 마케팅에 발 빠르게 나서며 집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재난지원금 풀리자... 편의점 '육류 소비' 늘었다

GS25, 지역화폐 매출 분석  
축산상품 판매 최대 8배 늘어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에서 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평소 자주 찾던 상품이 아닌 비교적 고가의 상품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셈이다.

편의점 GS25가 4월 한 달간 제로페이와 코나카드로 결제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매출이 가장 크게 신장한 카테고리 10개 중 4개가 축산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축산 상품 카테고리의 신장률과 순위(괄호 안은 신장률 순위)는 △수입고기 710.7%(1위) △국산돈육 394.9%(4위) △축산가공 347.7%(5위) △국산 쇠

고기 234.9%(9위) 순이었다. 제로페이와 코나카드의 전체 상품 매출이 같은 기간보다 94.8%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축산 카테고리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잘 팔렸던 상품은 한끼삼겹살, 한끼스테이크, 한끼오리통살스테이크 등 주로 중량 200g 내외의 1인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축산 상품이다.

김경한 GS리테일 축산 담당 MD는 "편의점에서 1인 장보기 문화가 확산하면서 GS25의 '한끼 시리즈'의 정육 상품 구매가 4월 들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 생활가전(556.8%)과 양곡(265.0%), 와인(214.2%)의 매출도 동기간 대비 각각 많이 늘어난 반면, 김치(61.2%) 셀러드(48.9%) 등의 신장률은 전체 평균(94.8%) 대비 다소 낮았다.

GS25는 재난지원금과 연동된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평소 빈번하게 구매하는 상품보다 비교적 고단가의 상품들 위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GS25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5월 1일부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코나카드, 동백전카드, 대구힘내요카드 등 재난 지원금 관련 지역화폐 결제 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22종 상품에 대해 1+1 증정,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체 편의점 중 제로페이 금액의 절반가량이 GS25에서 사용되고 있고 재난 지원금 관련 지역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구매 단가는 타 결제 수단 대비 2배가량 높은 편"이라고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1인 가구용 '4분의 1 수박'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10일 모델들이 '¼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지만 무겁고 껍질 처리가 불편해 1~2인 가구에서 쉽게 구입하기 꺼려지는 수박을 4분의 1 크기로 자른 수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 현대백, 국내 첫 '황실 토종닭 유정란' 판매

고품질 신선식품 차별화

현대백화점이 국내 1호 산란용 토종닭이 낳은 달걀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와 e슈퍼마켓에서 '황실 토종 유정란'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내 1호 산란용 토종닭으로 인증받은 '황실 토종닭'이 낳은 달걀로, 백화점 업계에서 판매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실 토종 유정란' (사진)은 현대백화점과 토종란 복원사업을 20여 년간 해온 안인식 대표가 1년간 협업 끝에 선보이게 됐다. 농가는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양질의 달걀을 생산하고, 현대백화점은 생산된 달걀을 100% 직매입해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토종닭이 낳은 달걀은 일반란보다 고소하고 영양이 뛰어나지만, 토종닭을 키우기 어려운 데다 일반산란계보다 산란율도 낮아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고 수준 품질의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출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실 토종 유정란'은 사육환경과 사료에서도 차별화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1만3223㎡(약 4000평) 규모의 '황실토종닭농장(충북 충주시)'에서 5000수가량의 토종닭을 자연 방목해 키우고, 유기농 사료를 먹인 것이 대표적이다. 가격은 10입 기준으로 1만6000원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토종닭이 생산한 만큼 일반란 대비 3배 정도, 일반 동물복지란보다도 2배가량 가격이 높지만 그만큼 품질과 신선도가 뛰어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선식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휠라×씨브웨이·폴햄×맛동산...

### "코로나發 불황 뚫자" 패션가, 이색 컬래버 바람

패션업계가 이색 컬래버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심리 자극에 나선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 대비 11.9%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판매가 하락했다. 따뜻한 날씨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동절기 의류 판매가 주춤했던 탓이다. 이에 패션업계는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색 컬래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포츠브랜드 휠라(FILA)는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씨브웨이와 손잡고 '휠라×씨브웨이 콜라보 컬렉션(사진)'을 출시했다. 씨브웨이의 대표 메뉴이자 휠라와 '이탈리아'로 연결고리가 있는 메뉴 '이탈리안B.M.T', '에그마요' 디자인으로, 의류·액세서리 등 24종이다.



'휠라 키즈'도 컬래버 컬렉션으로 동심잡기에 나섰다. 휠라 키즈는 마이크로키보드와 손잡고 '휠라 키즈×마이크로키보드 콜라보 컬렉션'을 출시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티셔츠와 후드 티셔츠의 등판, 후드 소매 등에 3M 리플렉티브(반사 소재) 로고를 적용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반사돼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에이션패션의 캐주얼 브랜드 폴햄(POLHAM)은 해태제과 맛동산과 손잡았다. 맛동산의 시그니처 아트워크를 활용한 5가지 컬러의 티셔츠 라인과 2가지 버전의 피크닉 세트를 선보인다.

'컬래버 맛집' 이랜드월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도 영화 '기생충'과의 협업 상품을 내놨다. 스파오×기생충 협업 상품은 영화 속 상징적인 소품과 대사들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1차 출시에서는 티셔츠 9종, 다이어리 1종, 핸드폰 액세서리 3종, 에코백 3종을 선보인다.

박미선 기자 only@

# ‘한국판 뉴딜’ 핵심인 디지털·비대면 업체 수혜 기대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5G 기반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증권가, 나무기술·알서포트 등  
클라우드·재택근무 서비스업 주목

## 한국판 뉴딜 관련 예상 수혜주

구분	8일 주가(원)	상승률(%)
클라우드	더존비즈온	99800 86.54
	다우기술	18400 59.3
	나무기술	4450 143.17
	휴네시스	4780 106.93
	이지케어텍	20050 114.44
데이터	비트컴퓨터	9880 168.48
	카카오	206000 61.57
	NHN	83000 60.23
	NICE평가정보	18300 70.23
디지털 솔루션	삼성에스디에스	176000 32.83
	롯데정보통신	37000 114.49
재택근무	알서포트	6880 189.68

\* 상승률은 연중 최저가 대비 \* 출처: 한국거래소

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산업을 지원·육성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책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증권가는 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국판 뉴딜을 위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세부적인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세부사항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이나에 연구원은 “정부의 ‘5G 구축과 이에 기반을 둔 데이터경제 확

성화’ 의지가 이번 정책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됐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증권가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면 개인은 사무실 PC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커뮤니케이션과 파일 공유 등 업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으로는 원격 근무를 위해 필요한 가상망 및 망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무기술과 휴네시스, 비즈니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과 다우기술, 병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지케어텍과 비트컴퓨터 등이 있다.

또 정부가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

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유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세도 점쳐진다.

특히 하반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NHN의 페이코, NICE평가정보도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선정되면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 등을 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과 재택근무 서비스를 영위하는 알서포트도 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정책이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로 이어지면서 증시 주도주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최고가 행진 중이다. 시가총액 순위로도 네이버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고, 카카오는 올 초 23위에서 12위로 급상승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팔자’ 중인 외국인도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IT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는 카카오(1395억원)이며 네이버(428억원·7위), 더존비즈온(170억원·12위)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유회증권 김승한 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의 극복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들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의 증시의 주도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화할 정책 방향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자본잠식’ 판타지오, 자금조달 속도 낸다

### 공시돋보기

지난해 부분 자본잠식을 기록했던 판타지오가 올해 들어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8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3년물로, 조달 대상은 밸류1호 투자조합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2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2분기 들어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회사는 연이은 손실 속에 자본금이 자본총액을 추월하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연말 결산 기준 자본잠식률은 35.32%다.

판타지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손실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해엔 전년 대비 72.11% 불어난 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의 경우 매출은 늘었지만, 매출

### 판타지오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 원, 자본총액은 비지배자본 제외)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33	136	185
영업이익	-64	3.5	5
당기순이익	-88	-92	-158
자본금	364	364	364
자본총액	475	332	235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지난달 유증 이어 200억 CB 발행  
4년 연속 손실 속에 결손금 늘어  
자본잠식 해소돼도 재발 가능성 커

원가와 기타영업외비용이 늘어나면서 손실 폭을 키웠다.

손실액이 쌓여갈수록 결손금 역시 늘었다. 회사의 결손금은 지난 3년간 515억 원, 600억 원, 759억 원을 기록했다. 결손금이 지속해서 자본총액을 갉아먹어 자본잠식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이은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잠식은 해소될 것

로 보이지만, 결손금 누적이 진행되는 이상 잠식 전환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실적 반등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판타지오는 올해 1분기까지 중국 JC그룹의 한국지사인 골드파이낸스코리아가 최대주주(31.33%)로 있었으나, 지난달 골드파이낸스코리아가 지엔씨파트너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이번 매각금액은 150억 원이며 양수도 일은 27일이다. 일각에선 JC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 지난해 불법 자금 조달과 사기 스캔들로 인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그룹 사정이 어려워지자 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판타지오는 1991년 설립돼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4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오던 코넥스 상장사를 합병한 후 현재 매니지먼트 사업과 영화·음반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으로는 차은우, 용성우, 걸그룹 위키미키 등이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삼성전자, 액면분할 2년 만에 주주 5.7배 증가 ‘국민株’ 안착

日평균 거래대금 75% 증가... 개인투자자 집중 매수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2년 만에 주주가 5.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75%가량 늘며 ‘국민주’로 등극했다. 최근 증시 폭락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액면분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4일 주식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액면분할은 주식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유통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높아 일반투자자들이 사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액면분할 직전 265만 원이었던 삼성전자는 5만 3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결산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주주는 136만5221명으로 집계됐다. 액면분할 전인 2018년 1분기 말(24만1513명)과 비교하면 약 5.65배로 증가한 수치다.

액면분할로 투자 저변은 넓어졌고 주주도 대거 늘었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로 액면분할 후 주가는 되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업황에 바다 탈출의 신호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다. DRAM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고,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올해 초 6만 원 고지를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 탓에 주가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증가 기준 6만2400원(1월 20일)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3월 23일 연저점인 4만2500원까지 추락했다.

폭락장에서 개인들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외국인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누적 순매도액은 7조8088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 기간 삼성전자 주식 8조708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1분기 매출 161% 늘어... 올해 실적 기대감 ‘쑥’

### 한계기업 돋보기

#### 나노스

### 나노스 연결기준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358	611	526
영업이익	-147	-32	-143
순이익	-202	-135	-163
이자비용	35	44	28

6년 새 매출이 77% 급감하며 한계기업으로 전락한 나노스가 올해 1분기 흑자 반전으로 돌아선 가운데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노스는 1분기 별도기준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5억 원으로 작년보다 161.4% 급증했고 순이익은 49억 원의 흑자를 냈다.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광학 필터와 홀센서 제조·판매 업체로 2004년 삼성전지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매출의 68%가량이 광학 필터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엠씨넥스, 파워로직스, 나무가, 캄시스 등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나노스는 상장 전후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다. 2011년 연결기준 매출 548억

2018년부터 ‘홀센서’ 매출 반영  
적자 규모 줄며 1분기 순익 49억

원에서 이듬해 1321억 원으로 141.0% 뛰었다. 2013년에도 신장세가 이어져 매출은 2305억 원으로 설립 이래 최고치에 올랐다. 영업이익은 2010년 31억 원에서 2012~2013년 80억 원대로 늘었다. 이를 계기로 나노스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나노스 매출은 2014년 936억 원으로 급감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플래그십과 중저가 휴대폰 모델들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필름 필터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블루 필터에 치중하던 나노스 실적은 직격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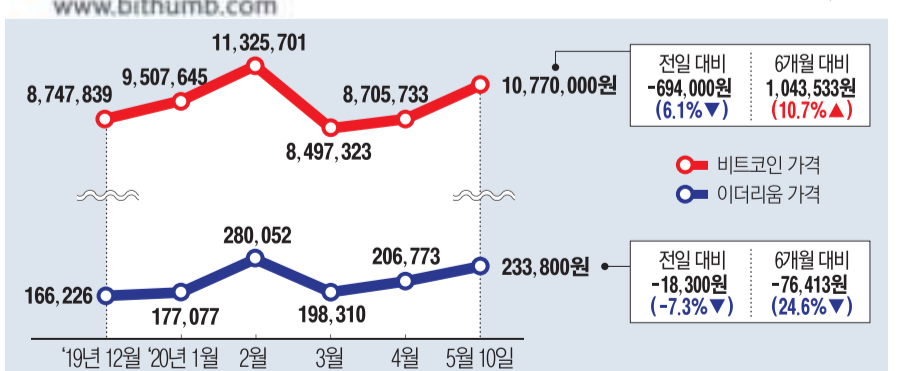
2016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2015년 500억 원대 영업손실에 1000억 원 넘는 손실로 2016년 4월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신규 개발 모델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했고, 삼성전자 보급형 모델의 물량 감소로 광학 필터 수주까지 줄어들면서 매출은 397억 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전년과 유사한 51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나노스의 어려움은 법정관리를 졸업하던 2017년까지 계속됐으며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며 한계기업이 됐다. 그러나 2018년 홀센서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 그 해 매출은 611억 원으로 신장했고 100억 원을 웃돌던 적자 규모는 3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해외법인(공장 포함) 통합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유형자산 손상으로 영업적자 규모가 148억 원으로 다시 커졌으나 4분기에 별도기준 흑자를 내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나노스 측은 “나노스의 광학 필터 생산 시설 단일화를 통해 비용 절감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5월 10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290,900	-28,600 (9.0%▼)
리플	245	-19 (7.2%▼)
라이트코인	52,300	-5,050 (8.8%▼)
대시	89,100	-7,550 (7.8%▼)
모네로	71,850	-5,800 (7.5%▼)
비트코인골드	10,930	-960 (8.1%▼)
이더리움클래식	7,740	-835 (9.7%▼)
퀀텀	1,813	-136 (7.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고시촌’ 노량진, 9000가구 대단지 ‘변신’ 시동

4구역 시공사 선정 설명회 개최  
6구역 이르면 하반기 이주  
뉴타운 선정 15년 만에 개발 탄력  
한강 이남 마지막 ‘알짜 뉴타운’  
사업 활기에 프리미엄만 6억



구역	사업단계	현재 진행 상황	가구수	면적(㎡)	시공사
1구역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준비	2992	13만2118	-
2구역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준비	424	1만6207	SK건설
3구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1272	7만3153	-
4구역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중	844	4만753	시공사 선정 중
5구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비	746	3만1837	-
6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	1499	7만2824	GS건설·SK건설
7구역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진행 중	614	3만3155	SK건설
8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비	1007	5만7035	대림산업

낙후된 이미지와 수산시장, 고시생의 터전으로 대표되는 서울 노량진뉴타운이 환골탈태를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뉴타운 지정 15년 만에 개발에 탄력을 받아온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각종 개발 호재를 안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4구역 조합은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고려개발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사 8곳이 참여했다. 아파트 8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4구역은 내달 22일 입찰을 마

감한 뒤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량진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원 총 73만여㎡ 규모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구역으로 쪼개져 개발 중이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고시촌 원룸주인 등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15년 가까이 표류했다. 여기다 낙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탄탄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일대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진 건 2017년 말까 8개 전 구역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면서부터다. 개발이 본격도에 오른 뒤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2·4·6·7·8구역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이들 5곳은 관리처분인가를, 나머지 1·3·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은 6구역이다. 7만3000㎡ 규모로 8곳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6구역은 당초 이달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이르면 올해 말까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는 GS건설과 SK건설로 총 1499가구 단지가 조성된다. 6구역에 이어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8구역과 2구역이다. 사업성 면에서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곳은 1구역이다. 면적이 13만2118

㎡에 달해 노량진뉴타운은 물론 동작구 전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체 공급 물량이 2992가구(임대주택 547가구 포함)에 달하지만 조합원 비중은 50%도 되지 않아 일반분양 물량이 절반을 넘어선다. 다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속도는 다소 더디다. 노량진뉴타운은 한강 이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알짜 뉴타운으로 평가받는다. 지하철만 3개 노선이 지나는데다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알짜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하는 경전철 서부선(16.23km)은 여의도를 거쳐 노량진뉴타운을 관통해 장승배기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발

이 마무리되면 9000가구 대규모의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6구역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만 6억 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4억~5억 원 수준이었던 프리미엄은 사업 활기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더 뛰어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투자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최저선은 여전히 6억 원이라는 게 현지 공인 관계자의 전언이다. 6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와 84㎡가 각각 5억3000만 원, 6억2000만 원선이다. 지대가 다소 높고, 사업 규모가 작은 7구역 역시 프리미엄은 최소 5억 원에 달한다. 주변 시세는 2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한 상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84㎡가 최고 15억 원에 달한다. 전용 72㎡는 12억8000만~13억6000만 원대다. 노량진뉴타운 일대 H공인 측은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 사업 속도가 늦은 구역도 시세가 높긴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떤 규제를 더 내놓을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 일대 입지가 워낙 탄탄한 데다 개발 호재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계약일	거래금액(만 원)	층수
2019년 6월 29일	166,000	5
2019년 8월 5일	158,000	2
2019년 9월 24일	179,000	15
2019년 10월 5일	178,000	7
2019년 10월 25일	166,000	3
2019년 11월 23일	183,000	14
2019년 12월 9일	180,000	2
2020년 4월 15일	185,000	22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전용 면적: 114㎡

## 현대엔지니어링, 인천 송림 재개발 수주

올해 누적 실적 1兆 돌파

현대엔지니어링이 인천 송림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누적 수주실적 1억 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일 진행된 인천 송림 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45층 높이의 아파트 3693가구를 짓는 것이다. 공사 금액은 총 6742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1601억 원), 3월 청주 자작1구역 재개발 사업(1680억 원)에 이어 이번에 60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를 따내면서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

했다. 이번에 수주한 송림 1·2구역은 동인천역 세권 복합개발사업, 인천내항 특화지구 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송현근린공원과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45㎡ 256가구, 59㎡ 2769가구, 74㎡ 325가구, 84㎡ 343가구 등 중소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지가 위치한 송림동은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및 구축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며 “회사의 건축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해 최고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코로나 한파·부동산 규제에도 마포·서대문 신고가 거래 ‘눈길’

‘e편한세상 신촌’ 4800만원 경중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00만원 ↑  
급매물 줄며 ‘가격 바닥론’ 나와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여파 가운데 서울 마포구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성사됐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급매물 역시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오르는 등 ‘가격 바닥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현장 분위기가 냉랭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114㎡형이 직전 최고가보다 2000만 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지난달 15일 이 매물은 18억5000만 원에 손바꿈됐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23일 18억3000만 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말 18억 원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역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59㎡형은 지난달 18일 직전 최고가 12

억5700만 원보다 4800만 원 높은 가격에 손바꿈됐다. 다만, 몇몇 거래만 놓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전망이다어서 서울 아파트값 바닥론을 논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거래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은 직전 최고가인 16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낮은 1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가 14억9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낮다. 이 단지 전용 59㎡형 역시 같은 달 12일 12억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인 13억2000만 원보다 1억2000만 원 낮은 가격에 손바꿈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신고가 거래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포구 아현동 B공인중개사는 “해당 거래는 잘 모르겠다”며 “지난 연휴 기간에도 물건을 보러 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지 전화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근 J공인중개사 역시 “연휴 때도 예전만큼 손님이 없었고 매수세가 그리 많지 않다”며 “(신고가를 경신한) 그 집이 좋아서 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당 물건이 팔린 건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둘째 주엔 전국에서 67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0개 단지, 6733가구(일반분양 457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포레자이’·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12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경기 고양시 고양시 덕은동 ‘DMC 리버파크 자이·리버포레 자이’·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8곳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 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다음 주 권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3곳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 광주 포레스트’,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 디오션 자이’ 등이 각각 8일 권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11 (월)	접수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			
			중북	청주시	모충동	청주모충1(공공임대) 1순위		
			달서구	진천동	월배라프라이빗디엘			
5/12 (화)	접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1순위 (당해지역)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1순위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B3-1(공공임대) 1순위			
			청주시	모충동	청주모충1(공공임대) 2순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제이원클래스시움 1순위		
5/13 (수)	발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신안원월드메르디앙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효산빌뉴		
5/13 (수)	접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1순위 (기타지역)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2순위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대구역오피라 (~5/18)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B3-1(공공임대) 2순위		
5/13 (수)	발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동홍동	제이원클래스시움 2순위		
			대전	동구	기양동	기양동고운하이플러스		
				충남	계룡시	두미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5/14 (목)	접수	경기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2순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해저(행복주택) (~5/21)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파크자이
5/14 (목)	발표	인천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내브리즈힐(공공분양)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		
5/15 (금)	발표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포레자이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		
5/15 (금)	계약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5/20)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		
5/17 (일)	접수	경기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5/18)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정경심 199일 만에 석방... 조국과 불구속 재판

##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적어 추가 영장 발부 않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199일 만인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나”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 나와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 뒤 대기하던 은색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정 교수를 지지하는 120여 명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적힌 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었다.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시민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영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 이미 증거조사

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고, 한 달 후인 10월에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또 기소했다. 총 세 차례로 나뉜 정 교수의 재판은 모두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정 교수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던 8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 비리와 검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차 안에서 영화 한 편

10일 서울 마포구 중산로 문화비축기지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을 찾은 시민들이 차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시민 77% “박원순 시장 코로나 대응 신뢰”

‘서울시에 새 기회’ 67.7%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코로나19 위험 인식 설문조사’에서 시의 방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공적 대응에 신뢰를 나타냈다.

서울시와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66.9%에 달했다.

더불어 67.7%가 ‘코로나19 경협이 서울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답했고 54.7%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울시가 세계 도시의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출 자제’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70.6%로 높았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답변은 2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는’ 생활방역 개인 지침에 대해서는 68.6%가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실제로 항상 그렇게 한다’는 비율은 49.1%에 그쳤다.

응답자의 13.4%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대답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카페 ‘테라로사’ 베낀 건축업자 벌금형 확정

### 대법 “저작권법 위반”

강릉시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을 모방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설계사무소 건축사인 김 씨는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에 ‘테라로사’를 모방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테라로사’ 건축물의 외관은 건축전문도서, 건축사 협회 월간지 등에 수록되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 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건축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다”며 “두 건축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옥상의 돌출 부분, 출입구와 유리창의 형태 등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테라로사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

된 형상과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등 특징이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며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건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 “어선 화재 조기진압”...해양교통안전공, 소화장치 고도화

올해 3월 제주시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307해양호) 화재사고로 2명이 구조됐지만 6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에 완도와 영덕에서도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전소됐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소형어선 대부분(약 96%)이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다. FRP는 화재 시 순식간에 전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의 통신장비가 불에 타 신고와 구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어선의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인기관실이란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기관실(엔진 등)로 기관 운전 중 선원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기

##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개선 화재정보탐지기 설치장소 확대 기관실 전용 소화약제 개발 등 ‘어선 화재피해 저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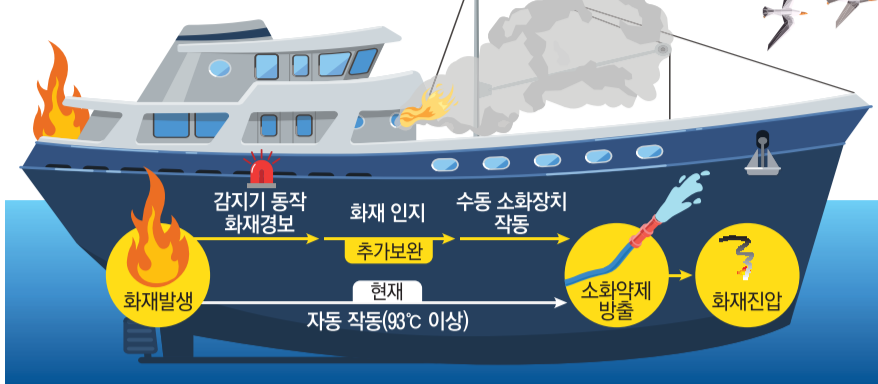
관실을 의미하며 소형어선 대부분이 해당된다.

국내 어선 화재사고의 경우 FRP 어선의 무인기관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FRP 선박은 화재 시 순식간에 전소하는 특성이 있으나 기존 자동소화장치는 별도의 화재정보탐지기 없이 93℃ 이상이 되어야만 열센서가 감지하고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방식이어서 화재의 초기 진화가 어렵다.

이에 공단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알람이 울리는 ‘화재정보탐지기’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화재 알람 시 원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수동소화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선원실과 조타실 등에도 화재정보탐

###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개선안



지기를 설치해 즉각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화기 분말로 인한 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실 환경에 적합한 소화약제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어업인의 대피시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학계, 산업계, 연구소의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협의체를 통해 선박용 자동소화장치 고도화 및 어업인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4, 시각경보기1)가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조기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받으자 하는 사람은 담당 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화재 시 초기 탐지 및 진압이 중요하다”며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개선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화재사고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어촌어항공단, 코로나 피해 지원 총력

### 수익계약 한도 상향 등 ‘공공계약 긴급처리 프로세스’ 마련

#### 수산물 홍보도 적극 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촌어항공단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단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공단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수익계약을 확대하고 발주 및 대금 지급 처리기한을 단축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지원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은 △소액 수익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익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현행 50%로 인하 △검산·검수기간(14일→7일) 및 대금지급(5일→3일) 기한 단축 등이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정부 권고사항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공공계약 업무 긴급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예산 조기 집행 달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어촌어항공단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서산시와 손잡고 서산시 대표 수산물 ‘감태’를 이달 4일 KBS1 ‘6시 내고향 상생장터’ <사진>에서 소개했다.

이번 방송은 서산시의 우수 수산물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됐다. 또 감태 채취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감태전과 감태말이 등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소개됐다. 방역 이후 감태 주문액은 약 3500만 원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국립등대박물관, 등대·해양유물 공개 구입

### 25~29일 우편·방문 접수

국립등대박물관이 개관 후 처음으로 소장품 구매에 나선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등대박물관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등대 및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소장품 공개 구입을 진행한다

주요 구매대상은 등대 및 항로표지, 항해 도구에 관한 자료들로 실물, 모형, 화폐, 우표, 서적, 도면 및 지도류, 그림, 사

진, 영상, 인쇄물, 등대원 근무복 및 생활용품, 업무수첩, 미술 공예품 및 기타 기록물 등 등대 및 항해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

소장품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https://www.lighthouse-museum.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한 자료는 매도신청이 불가능하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 COVER STORY 바이러스의 진실

- PART1. 코로나19로 붉은 봄에 드리고 싶은 말
-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답이다
-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 선과악이 만난 사랑



늦은 소년 가수 이광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악인 김영민 대한민국 단 하루의 소리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



주말마다 삶과 스토리를 새겨 놓다 해외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정희



### 더불어 숲

중요한 것은... 더불어 숲

###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등대마을의 추억 앨범 '눈골담길'

시집 '목호를 읽고' 막걸리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산배의 SNS 글을 보고, 기적 속 목호를 떠올렸다. 목호등대마을의 비좁고 가파른 골짜기 속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바다, 슬레이트집 담배로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등대 마을 안에서 향연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밤 풍경들. 유난히 목호가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렇다.



### 시니어 밥상

올바른 생활습관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불소풍 도시락

###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영 하니은행 은화집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눈-게 보고, 갈-게 가라'

### 고수열전 삶을 통해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다.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러거나 피라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다.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다. 때때로 스럽이 꼬이고 두렵기 증은 세계에 간하는 게 사람이다. 신의 이름을 간청해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려는 게 사람이다. 도들이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성남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자용개발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호풍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 “예측불허 자본시장 이겨내려면 ‘마음근육’ 키워야죠”

**W기획 인터뷰** 이 경 민 미래에셋대우 전무

“시장도 고객 마음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럴수록 우리 일상 속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경민 미래에셋대우 전무는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역동적인 자본시장에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고객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일상 속 마음근육을 키우면서 변함없는 ‘고객 중심’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경민 전무는 미래에셋대우 창사 이래 영업 부문에서 탄생한 첫 여성 전무다. 증권업은 여성 임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불모지로 꼽힌다. 2016년 그가 첫 여성 상무로 발탁됐을 당시, 시장은 증권가의 견고한 유리천장에도 균열이 시작됐다고 그를 주목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8년 11월, 그는 전무로 승진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여성임원 타이틀, ‘기회’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 = 이 전무는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기에 오늘날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입사’ 때부터 ‘특별한 기회’가 시작된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 전무는 “25년 전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는 상경 계열에서만 인력을 채용했다”면서 “제가 지원할 당시 처음으로 ‘인문 계열’도 채용을 확대하면서 110명 중 여성 신입사원이 당시 46명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면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여성 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치 우연처럼 그가 증권가의 문을 두드렸을 때처럼 말이다.

그는 “동기들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도 저에겐 감사한 일인데 지점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여러 부서의 일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며 “증권사에 PB가 처음 도

PB 20년...관리 자산 1.3조  
공감능력 바탕으로 시장 분석  
고객과 신뢰 쌓이기 시작해

IMF서 코로나까지 위기 겪어보니  
‘고객 중심’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입된 후 영업, 기획, 전략, 시스템 개발, 법인 영업을 모두 거치면서 오늘날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이 전무는 여성 인력에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업 문화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임원 발표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여성의 전문인력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나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서 혜택을 받은 첫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성별의 강점을 살려 조화를 이룬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믿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꽃은 돈, PB로 시장과 사람 공부해” = 이 전무는 PB 경력만 20년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는 ‘그랜드마스터 PB’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랜드마스터PB의 조건은 관리 자산 1000억 원 이상, 회사기여 수익이 연 10억 원 이상이다. 현재 그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1조 3000억 원 규모에 달해 미래에셋대우를 대표하는 PB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전무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PB가 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경민 미래에셋대우 전무가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미래에셋대우 갤러리AWM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PB가 되자마자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다. 자신의 강점으로 생각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리를 하되 분석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는 고객도 투자도, ‘솔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어 “카피라이터를 꿈꿨던 젊은 시절이 있을 만큼 ‘감성 영역’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PB업무는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객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주어져서 때문”이라며 “어쩌면 저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강점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나고

또 시장을 끊임없이 분석하다 보니 고객과 신뢰도 쌓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 속 ‘마음근육’ 필요해” = 현대 자본시장은 세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1997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다. 이 전무는 이 세 차례 금융위기를 모두 겪었다. 이 가운데 체감하기에 어떤 시장이 가장 어려운지 묻자 “지금 가장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웃었다.

이 전무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다”며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이 전무는 신입 시절로 영업점에서 법인업무할 때였는데 당시엔 금리 자체가 20%가 넘는 고금리 시대로 다른 투자 대안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역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풀었는데 정책 공조로 인한 유동성으로 장도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19 금융위기는 전에 있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차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설명이 어려운 시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 저유가에서 실물경기로 옮겨가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점 확인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전무의 설명이다.

이처럼 역동적인 자본시장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근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어느덧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본래 고객 투자 성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데, 이런 순간을 가장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 전무가 ‘마음근육’을 강조한 이유다.

그는 “좋아 보이는 시장이 있을 때가 있다”면서 “오로지 은행 정기적금만 할 만큼 보수적인 투자성향이 있는 고객들도 이런 시장에선 위험자산을 원할 때가 있는데 물론 처음엔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어느덧 무리수를 두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그럴수록 전 본래 고객 투자 성향을 잃지 않는 ‘고객 중심 원칙’을 다짐한다. 일도 투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후배들에게도 ‘마음근육 키우기’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성과는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자신의 업무 철학을 세우고 전문 능력도 함께 올린다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여성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Premium Toothpaste

#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사카린 나트륨

無 SLS

無 파라벤

無 청강탄산 칼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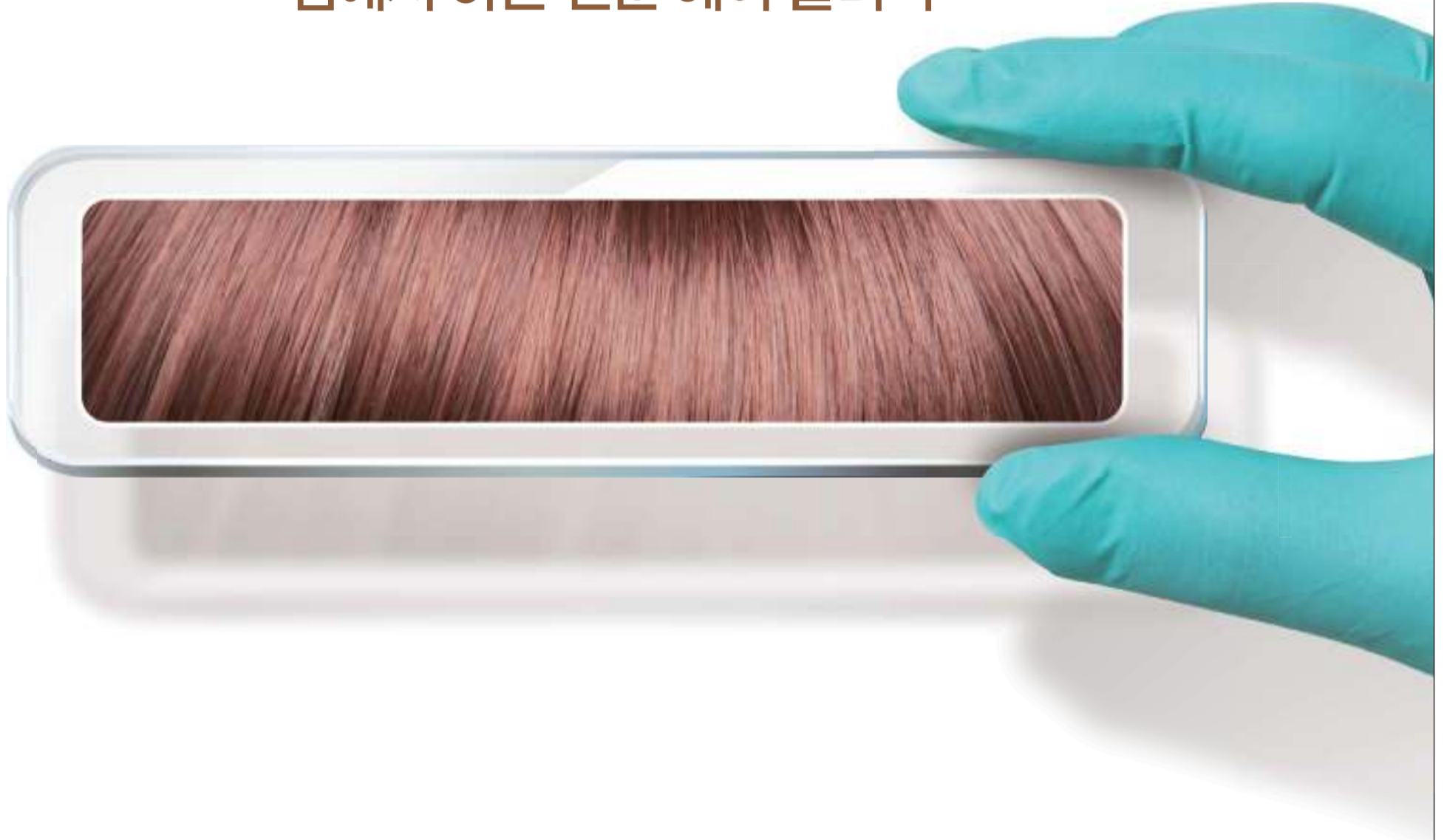
**LUBAS**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집에서 하는 전문 헤어 클리닉”



# 탈모증상완화에 도움!

현대약품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미녹솔S 3종세트

현대약품의 국민탈모약 마이녹실에 감탄한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탄생했습니다.  
탈모증상을 완화하고 모발을 케어하는 현대약품 미녹솔S! 집에서도 쉽게 간편하게 탈모관리하세요.

## 미녹솔S 스케일러 (두피 스케일링 및 각질케어)

자연유래추출물로 두피를 상쾌하고 청결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쿠파펩타이드, 호두껍질, 마유오일, 베타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 미녹솔S 샴푸 (두피영양 및 모발케어 /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 4종 : 바이오틴, 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  
자연유래 성분 : 콜라겐, 비타민C,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맥주효모추출물, 여성초추출물, 녹차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쿠파펩타이드

## 스칼프 헤어토닉 (두피 및 모발영양)

집중 영양 공급으로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쿠파펩타이드, 붓꽃추출물, 맥아추출물, 멘톨



아람비스토어 단독 특별 판매가

2세트 : ~~120,000원~~ ▶ **108,000원** / 1세트 : 60,000원 /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진화하는 금융사기...검경 합동수사로 대응해야”

###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맹 고문변호사

#### 조희팔→IDS홀딩스→벨류인베스트→라임, 갈수록 수법 교묘 검찰만으론 인력 한계...피해자·로비조사 등 경찰 협력 필요

“사기꾼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대응력 부족이 문제다.”

이민석(사진) 금융피해자연맹 고문 변호사는 10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이어지며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맹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회(로커스체인 피해자연합회 포함),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

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사건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법조인 중 하나다. 2016년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엄벌을 탄원하고 도주 중인 지점장을 검거하는 데 기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그는 우연히 IDS홀딩스 판매책과 알게 됐고,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피해자들과 공조해 도주 중



인 IDS홀딩스 핵심인물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하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사기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를 내세운 상품 다단계 사기였던 조희팔 사건에서 해외fx 마진 투자를 들고나온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사건을 거쳐, 비상장 주식투자를 내세워 사모펀드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모펀드형 사기의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발생해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이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전 행사 참석 영상이 검찰이 흘린 정보라고 하면서 정점을 흐리는 사람도 있다”며 “주위에서 여러 음모론이 많은데, 사기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

### 임진 전 금융부 거시경제실장 대한상의 SGI 2대 원장 위촉

임진 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제2대 원장에 위촉됐다.



대한상의는 제1대 서영경 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후임자로 임 신임 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발표했다. SGI는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서,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어스틴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 2012년부터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연구실장, 금융시스템리스크센터장,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대한상의 SGI는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대표 민간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백악관 확진자에... 美 ‘코로나19’ 보건수장 3명 자가격리

### 펜스 부통령 대변인 양성 판정 이어 TF 참석자들 감염 우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 우려로 인해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던 보건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CDC는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백악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돼 2주 동안 자가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이 나왔다. FDA 측 또한 한 국장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

미국 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백악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에는 스티븐 한 FDA 국장이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돼 2주 동안 자가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이 나왔다. FDA 측 또한 한 국장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

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자체적으로 ‘완화된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확진 판정을 받은 백악관 직원과의 접촉 정도가 ‘낮은 위험도(low risk)’라면서 완화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완전한 자가격리에 돌입한 레드필드 국장이나 한 국장과는 달리 혼자 쓰는 연구소 사무실에 출근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던 보건 수장들이 잇따라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감염 우려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확진 판정이



왼쪽부터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내려진 밀러 대변인의 남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이다. 백악관 전체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빠진 것이다. 다만 CNN 방송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밀러 대변인의 양성 판정으로 백악관 내 접촉 내역에 따른 추적이 진행됐으며 남편인 밀러 선임보좌관을 포함해 접촉한 사람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호선 기자 hsbyun@

### LG유플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6기



LG유플러스는 대학생 디지털 콘텐츠 기획홍보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 서포터즈 ‘유대감’ 6기에 최종 선정된 20인이 8일 온라인을 통한 ‘인택트’ 발대식을 실시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 ‘유대감’은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 서포터즈’의 줄임말이다. 2017년 10월 1기 활동을 시작으로 20대 시대의 독창적 콘텐츠를 생산 중이다.

## 삼성전자 이부진·이서현,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역대 기부

이부진(왼쪽 사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오른쪽)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3억 원을 기부했다.

10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개한 2019년도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1억 원, 이서현 이사장이 2억 원을 각각 기

부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 삼성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011년 이후 2014년만 제외하고 매해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같은 기간 이부진 사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실적은 이번에 공개된 지난해 1억 원이 처음이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 부음 MB 때 靑 민정수석...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7세.



대구 출신인 권 전 장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쳐 대구 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

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62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보숙 씨와 장남 권석현(김앤장법률사무소), 차남 권석재(중앙대학교)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6시 45분이다. 장지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선영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감사연구원장 파광열 △시설안전감사단장 김명관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감사청구조사국장 이영웅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강승준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정훈 △경제정책국장 이형일 △재정관리국장 이호동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조창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이창윤 △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 권석민 ◇국장급 파견 △지식재산정책관 김정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원 △건설본부장 이종윤 △기술본부장 이인희 △시설본부장 장봉희

◆KBS △전략기획실 예산국장 손재오 △인적자원실장 조성용 △편성본부 영상제작국장 이규하 △인적자원실 인사운영부장 김우진 △" 인재개발원장 조경숙 △

진주방송국장 정재준 △순천방송국장 전희수 △포항방송국장 박혁준

◆연합뉴스 ◇본부장·단장·에디터 전보 △국제뉴스1부 유택형 △경남취재본부 지성호 △광주·전남취재본부 송형일 △편집국 선임데스크톱 김계환 △한류기획단장 김태식 △경남취재본부장 최병길 △편집국 경제에디터 강의영 △" 국제에디터 신지홍 ◇부장 전보 △영어영상부장 정주호 △영상미디어부장 김화영 △정치부장 김재현 △문화부장 김정선 △산업부장 박성제 △소비자경제부장 김지훈 △IT의료과학부장 서한기 △정책뉴스부장 심인성 △전국부장 옥철 △국제뉴스1부장 김기성 △인천취재본부장 이상원 △광주·전남취재본부장 김재선 △전북취재본부장 이봉준 △충북취재본부장 박병기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장 유창엽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인교준 △IT의료과학부 과학전문기자 이주영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노효동 △" 최태용 △공공사업부 김진형 ◇부장 승진·전보 △공공사업부장 이춘근 △인천취재본부 취재부

본부장 강종구 △영상마케팅부 마케팅1팀장 권태일 △정보사업국 글로벌전략팀장 김범수 △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고봉준 △공공사업부 권진주 △제작시스템부 이동의 △성남주재 최찬홍 △부산취재본부 박형태 △대구·경북취재본부 이덕기 △충북취재본부 심규석 △사진부 안정원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김성진 ◇팀장 전보

◆연합뉴스TV △정치부장 노효동 △스포츠문화부장 최태용 △뉴스총괄부장 김가희 △콘텐츠제작부 선임PD 류관형 △그래픽뉴스부장 박현 △보도국 영상편집팀 선임위원 조동욱 △콘텐츠제작부장 이진균 △경영기획실 뉴미디어사업팀장 김경수 △영상편집부장 노일환 △보도국 편성팀장 홍성준 △디지털뉴스부장 남현호

◆파이낸셜뉴스 △에디터(정치·경제·사회 담당) 노주석 △사회부장 조창원 △사회부 전문기자 박인옥 △국제부장 오승범 △정치부장 직무대행 심형준 △논설위원 정인홍

### ‘로큰롤 개척자’ 美 가수 리틀 리처드

로큰롤 선구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가수, 리틀 리처드(본명 리처드 웨인 펜너먼)가 9일(현지시간) 골수암으로 테네



시주 톨라호마에서 숨을 거뒀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향년 87세.

리처드는 자신을 스스로 ‘로큰롤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1932년 조지아주 메이컨 태생인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투티 프루티’, ‘롱 톨 샬리’ 등 솔한 히트곡을 남기며 전 세계적으로 30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를 기록했다. 그의 음악은 R&B(리듬앤드블루스)의 착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구원 씨 별세, 주영영(대구교대 교수)·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영숙(간재총택 중부)·해숙(대구 중앙도서관) 씨

부친상, 변성열(전 한국감정원 부원장)·이창열(영남대 겸임교수) 씨 장인상 = 9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9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53-200-6149(조문, 조화, 부의 사양)

▲고옥선(권사) 씨 별세, 박상규·상은(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상훈(ST 대표이사 회장)·애경·혜경·선미 씨 모친상, 김경희·박세라 씨 시모상, 사지환(세광간리교회 원로목사)·윤석인(전 대한전선 부장)·박해성(전 BOE하이디스 대표이사) 씨 장모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예배 12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50

▲박재열 씨 별세, 윤영민 씨 남편상, 박선배(한국수력원자력 부장)·선미(서울역사박물관 주무관)·충배(한국수력원자력 대리) 씨 부친상, 이재성(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씨 장인상 = 9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30분, 02-2225-1004

허천국의 세계경제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제 갈 길 가는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긴 흐름으로 보면 경제 상황과 주가는 동행한다. 지금처럼 두 가지가 제 갈 길을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주식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인 것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이 현재의 '사실'이다. 워낙 급하게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통계 수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가 곤두박친 가운데 전적으로 정부 재정 지출에 의존하여 겨우 호흡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실물경제 악화를 감안하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식 시장도 선전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값도 고공행진이다. 함께 엮어서 보면 아귀가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넘쳐나는 유동성에서 찾아본다.

한국과 해외 주요국 모두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최소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2분기 및 연간 성장 전망에 비하면 양반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이 최근 전년에 비해 20% 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3%가 넘는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을 잘 보여준다. 올 2월 3.5%, 3월

4.4%였던 실업률이 4월에 14.7%로 치솟았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은 구직 포기자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난의 실제 규모는 더 크다.

주식은 3월 초 급락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미국 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다우존스 주가 지수는 2월 20일 2만 9000을 넘어 정점을 찍고 한 달 사이에 1만 8000 중반까지 급락했다. 그 후 꾸준히 오르며 현재 2만 4000에 근접해 있다. 우리의 코스피 주가지수도 2월 중순 고점에 비해 약 800포인트 하락해 3월 중순에 저점(1457)을 찍은 후 최근 1900선을 회복했다.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파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경제 상황과 주가는 동행한다. 즉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반영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두 가지가 제 갈 길을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주식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인 것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이 현재의 '사실'이다. 워낙 급하게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통계 수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경제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경제활동 정상화도 빨라질 텐데,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은 현재 세계적 초미의 관심사이어서 관련 새 소식은 더 이상 사적인 정보 영역이 아니다.

주식시장 호조는 주식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의 사정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비상 대응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등의 적극적 조치로 기업 부실화를 막고 나서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안전한 투자처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했던 주가가 유동성 공급과 함께 크게 올랐던 것의 학습효과가 컸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연초 이후 외국인 투

자자들이 팔고 나간 대기업 주식을 국내의 소위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매입했다.

금은 화폐에 비해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통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요가 늘고 금값이 오른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값이 떨어진 물건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금과 같은 대체수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금값이 크게 오른 것은 기현상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것은 올 초 시작된 원유가 하락이다. 산유국 간 갈등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악화로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물경제가 부진하니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다.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요 자산 가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동성 공급과 기업 부실화를 막는 정부의 비상조치에 기인한다. 유동성 풀림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변동이 항상 가능하기에 정책당국이나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할 때다.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게임이 견인할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투데이, 말투데이

적어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만 비교한다면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압승이다. 중국은 발생 5개월 만에 종식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아직도 혼란 속에 수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확진자 134만 명, 사망자가 8만 명에 이르고, 유럽도 확진자 158만 명, 사망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중국은 확진자 8만 2000명, 사망자 4600명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통계 축소 은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인구와 맞추어 4배로, 아니 10배로 계산해도 확진자는 82만 명, 사망자는 4만 6000명으로 나온다.

아, 오해는 말기 바란다. 민주주의나 국민의 사생활 보호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통계적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추론이다. 혹자는 중국의 인권을 말한다. 우한시를 강제로 폐쇄한 결정이나 이후 감염자를 격리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최근의 코로나 사태는 무기력하게 코로나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 적어도 중국은 조직적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더 이상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 후 조롱받던 '아시아의 병자'는 아니다.

코로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상의 충격을 줄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일정이 공개되었다.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국영 방송인 CCTV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DCEP(Digital Currency and 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으로 인민은행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선전, 쑤저우, 시안, 청두 5개 지역에서 비

공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쑤저우 시의 경우 공무원 교통 수단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에 생명을 불어넣는 화룡점정이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이 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 기반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이다.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 전체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인 21조 달러를 아우른다.

디지털 위안화는 바로 이런 일대일로에서 결재되는 기축통화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에서의 결재는 디지털 위안화로 가능하지만 글로벌 경제 활동의 뿌리까지 침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구상의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화폐가 달러

라는 것은 달러화가 글로벌 경제 활동의 근간에까지 침투해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이 바로 디지털 위안화가 경제 근간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내 가상화폐로 디지털 위안화를 지정하거나, 타 가상화폐와 연동, 교환해 자연스럽게 인간의 경제활동에 스며드는 것이다. 기반은 이미 존재한다. 글로벌 게임 1위이자 월간 접속자 1억 명을 기록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중국 텐센트의 소유다. 또, 텐센트와 넷이즈의 글로벌 게임 매출은 이미 25조 원, 13조 원으로 두 게임사를 합하면 40조 원에 육박한다. 40조 원의 게임 매출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된다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게임은 중국 경제 패권의 첨병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게임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소년의 유희 수단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게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흉'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언제가 되면 게임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한국이 이해할 수 있을까.

☆ 살바도르 달리 명언  
"그림이란, 슬픈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천연의 색이다."  
스스로 천재라 부른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그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 '편집광적 비관적 방법'이라 칭하는 창작기법을 발견했다. 광기로 가득 찬 그의 기행은 20세기 미술에 큰 족적을 남겼다. 대표작은 녹아내린 시계를 표현한 '기억의 지속'. 오늘날 그는 태어났다. 1904-1989.

☆ 고사성어 / 공명지조(共命之鳥)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잡보잡경(雜寶藏經)' 등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한 머리가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 다른 한 머리를 질투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게 되었고, 결국 두 머리 모두가 죽었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 시사상식 / 셰어런츠(Sharents)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 share와 parents의 합성어. 이들의 행동으로 아이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생기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녀 사생활을 감추려는 하이드런츠(hide와 parents의 합성어)도 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귀고리  
귀에 거는 '고리'라는 뜻. 귀에 거는 '골희'가 옛말. '귀엣골희'가 '귀골희'를 거쳐 '귀고리'로 표준말에 올랐다. 귀에 '거는' '귀걸이'와 같은 말.

☆ 유머 / 늘 초기 자금이 문제다  
돈이 몹시 쪼들리는 남편이 산더미 같은 청구서를 앞에 놓고 고민한다 "내 걱정을 대신해 누가 이걸 처리해준다면 당장 100만 원을 주겠어"라고 했다. 아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할래! 100만 원 어딴?"이라고 하자 남편의 대꾸.  
"응. 그게 첫 번째 걱정거리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코로나19 종식의 꿈 이뤄지려면

다. 우리 정부는 램데시비르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이르면 연말까지 치료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회사는 부광약품, 셀리버리, 이

문메드, 일약약품, 카이노스메드, 파미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 백신은 후보물질 3종이 연내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개발 사이클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제약사들은 국경을 넘는 협력에 나섰다. GC녹십자는 세계적 혈액제제 기업들

과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의체에 합류했다. 임상 데이터는 물론 인적자원도 공유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연내 치료제 출시'라는 목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제하에 가능한 결과다. 램데시비르는 아직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성급한 개발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현시점에서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치료제가 나올 시점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의 노력만으로는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아로새겨야 할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 세계 확진자는 400만 명에 육박했다. 조금씩 잠잠해지는가 싶던 국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재차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는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키운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신약을 만들어내기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탓이다.

그나마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가 최근 긍정적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램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고, 일본은 허가 신청 사흘 만에 특례 승인을 결정했

# 가격 규제가 부른 재건축 '후분양'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시장에 떠어난 후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포기하면서 앞다투어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다.

## 데스크칼럼

###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삼성물산은 '준공 후 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비 자체 조달까지 재건축 조합에 약속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전에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한 것은 삼성물산이 처음이다. 이에 맞서 대우건설은 선분양 및 리츠 상장(리츠 임대 후 매각)과 함께 후분양 방식을 조합에 제시했다.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건설과 GS건설도 아파트 골조공사가 끝난 후 분양을 제안하고 나섰다.

분양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자금 부담이 만만찮은 후분양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는 방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역마진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겨냥한 건설사들의 대응 전략이란 시각이 많다. 분양 시점을 늦출수록 가격(일반분양가)을 올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제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그리고 적정 이윤을 따져 분양가를 매기는 제도다. 여기서 택지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제에선 공시지가(땅값)가 사실상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땅값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65.5% 수준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건축비도 자재비와 인건

비 인상 등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후분양으로 돌릴 경우 조합 측 분양수입이 선분양 때보다 25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으로서의 건설사들의 후분양 제안을 마다할 리 없다. 분양가상한제 시대를 맞아 분양가가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최대 이슈가 된 마당에 후분양은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후분양 단지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둔촌주공과 잠실 진주아파트 등은 7월 말까지 일반분양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너도나도 후분양으로 돌아설 경우 상당 기간 신규 분양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약에 기다리던 분양대기 수요가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집값이 다시 들쭉날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2017년 집권 이후 후분양을 독려해 왔는데 이제 와서 후분양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건축 단지들의 후분양 전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이미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충돌한다.

분양가를 끌어내려 주변 집값도 잡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도 낮추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반하는 가격 규제 정책은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섣부른 선의만으로는 시장을 결코 이끌 수 없다. choch21@

## 시설

# 문 대통령 국난극복 구상, 기업활력 높여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후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운영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면서,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음을 토로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충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다.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과 기간산업 위기, 고용난과 실직의 공포 등이 몰아치는 '경제 전시(戰時)상황'이라는 말로 절박감을 드러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추고 여러 구상을 내놓았다. 제시된 해법은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집약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디지털 강국'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데이터 인프라 조기 구축,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결합 등의 과제와 투자계획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 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글로벌

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다.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의 사각(死角)에 있는 건설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임금 가족노동자들의 보호는 실로 급하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남았던 사안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은 없다. 한국 경제의 활로 또한 미래지향적 '디지털 뉴딜'에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경제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 한국이 'K 방역'의 성공을 이끈 동력 또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과 그 인프라에 힘입은 바 크다.

문제는 실행의 속도와, 그것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다. 정부 정책이 기업을 뛰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재정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몇 배의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고는 한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고, 마이너스 성장의 반전이 어렵다.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지 않으면 미래를 기억할 수 없다.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 자동차 회사와 외래어 표기법

동차 신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 문화는 단순히 고유 대수와 안전의식 등으로 기능할 수 없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에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사회 현상을 포함합니다.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관련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회사가 지어놓은 '고유명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고문구와 신차 안내책자는 물론 언론사에 배포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기술인 만큼, 새로 등장한 신기술은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또는 한글 맞춤법보다 우선됩니다. 예컨대 현대차가 발표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도 해도 회사가 이미 결정한 이름은 더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업계에서 굳어진 명칭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자동차 회사가 내놓는 신기술은 신조어의 산실이자 새로운 언어의 시험장입니다.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의

현상이기도 하지요. 특히 의미 파악이 어려운 외래어의 연결체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동의의 고유어나 우리말, 또는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이 존재하지만 간과되기 일쑤이지요.

한때 자동차 석학들이 모인 '자동차 공학회'가 국립국어원과 손잡고 올바른 자동차 전문용어 바로잡기에 나섰다. 신기술을 마구 쏟아내는 자동차 기업의 그릇된 신조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지어진 이름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대차의 신차 안내책자에는 △속압쇼바(소크 업소버 또는 완충기) △컴프레샤(컴프레서 또는 압축기) 등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한때 800만 대를 넘어섰던 현대·기아차는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차가 적게 팔리더라도 자동차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면, 우리 자동차 문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려면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해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지켜나갈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junior@

## 미리 보는 한 주 4월 구직급여·취업자 수... 고용충격 가능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보여줄 고용통계와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의 경기진단이나 나온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1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4%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24.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직급여 통계를 보완할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은 이를 후인 13일(수) 발표된다. 3월에는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 폭증한 160만7000명으로 증가폭과 규모 모두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였는데, 통계상 실업자 외에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8%포인트 늘어난 14.4%였다. 참고로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4월 실업률은 전달(4.4%)보다 10%포인트 이상 폭증한 14.7%였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웃돌았다.

최근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15일·금)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월 경제동향(12일·화)이 잇따라 공개된다. 앞서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 또한 4월 경제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도 위축됐다고 수출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향후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12일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3월엔 은행권 기업대출이 18조7000억 원, 가계대출도 9조6000억 원 늘어나며 모두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SAMSUNG



실온에서는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운 뿌리채소, 열대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 김치플러스로 비스포크 라이프를 완성하다

초정온 맞춤보관으로 푸드마다 신선하게 지켜주고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는 더 예뻐지고  
가족의 크기에 맞춰 사이즈까지, 김치플러스 비스포크로 모두 맞추다

비스포크를 더 완벽하게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